

논 문 개 요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학 교육은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때문에 교육 내용 또한 기존의 해석을 단순 수용하는 내용 전달 중심이 아니라, 활동 중심의 교육으로 작품의 이해와 감상 뿐 아니라, 문학의 수용과 창조를 동시에 포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시조 교육의 실태는 막연히 전통적 장르라는 식의 이해와 자구적 해독(字句的 解讀), 주제나 소재 파악 등 단편적 감상과 이론적 접근에 치우친 측면이 강했다. 또한 시조 장르의 내용이 학습되더라도 일반적인 문학 교육이나 시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학습자는 시조 특유의 특성과 묘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조를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학습 제재의 하나로만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시조 문학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조 문학의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자 소집단 토의 활동을 활용한 시조 문학 교육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 I 장에서의 시조 교육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 검토를 시작으로, II 장에서 시조 텍스트의 교육적 가치를 살피고 이러한 시조의 교육적 가치가 현행 학교 교육에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시조의 충분한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내용은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양하고자 본고에서는 소집단 토의 활동 과정을 시조 문학의 교수, 학습 방안의 하나로 활용하려고 했으며, 그 교육적 가치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III 장에서는 소집단 토의 활동을 통한 교수, 학습 활동의 방향과 수업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단계별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설명하였다. IV

장은 이러한 소집단 활동을 활용한 시조 교육 방안을 크게 세 영역(원리와 성격, 감상, 창작 영역)으로 나누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소집단 토의 활동으로 제시한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조의 원리와 성격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 관한 학습 모형으로는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 즉, 직소(JIGSAW)모형을 활용해 보고자 하였으며, 감상, 창작 영역에 관한 활동은 일반적인 소집단 토의 활동 과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내용 전달의 수업을 지양하고, 토의 과정을 바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성과를 학습자 스스로 찾아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의가 크다. 작품 선정의 기준은 현행 중학교 교과서 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강 텍스트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또한 학습자들에게 시조가 좀 더 친숙한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조 낭송 지도방안과, 창작 지도방안을 논의하였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시조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러나 시조창에 대한 지도는 시조 장르가 가진 음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시조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감상단계에서 수용된 학생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시조 창작과정으로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본 연구는 학습 방법의 하나로 제안한 소집단 토의 활동의 효율성과 기대되는 효과를 검증해 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시조 문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시조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의 개발과,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재량 아래 보다 활발한 시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3
II. 시조 교육의 의의와 현황	8
1. 시조의 교육적 가치	8
2. 현행 교육과정 시조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2
III. 소집단 토의 활동의 교육적 가치	21
1. 소집단 토의 활동의 개념과 필요성	21
2. 소집단 활동을 활용한 수업 방법	24
IV. 소집단 토의 활동을 통한 시조 교육 방안	29
1. 시조의 원리와 성격 교육 방안	29
1) 전문가 협력학습(JIGSAW)모형을 활용한 교수, 학습 과정 ...	30
2) 시조의 원리와 성격 교육 방안의 실제	35
2. 시조 이해와 감상 교육 방안	52
1) 시조 감상 교육 방안	52
① 텍스트 이해 영역	53
② 사회적, 문화적 맥락 영역	70
③ 상호 텍스트적 이해의 영역	81
2) 시조 낭송 교육 방안	87
① 시조 읽기와 낭송 지도 방법	88
② 시조창 지도 방법	92

3) 시조 창작 교육 방안	97
① 시조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창작 방법	99
② 시조 창작 학습의 실제	103
IV. 결론	115

참고문헌

ABSTRACT

표 차 례

<표 1>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시조 텍스트 수용 양상	13
<표 2> 소집단 활동의 수업 단계	27
<표 3> 직소(JIGSAW)모형의 수업 지도안	33

그 립 차 례

<그림 1> 직소 수업 모형 준비 과정 ①-좌석 배치도	32
<그림 2> 직소 수업 모형 준비 과정 ②-소주제 분담 과제	32
<그림 3> 모집단 학습지	45
<그림 4> 시조 낭송 테이프 만들기 학습 활동지	91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고전문학 교육은 국어교육, 그 가운데에서도 문학교육 범주의 하나로 간주된다. 또 다시 이를 세분화하여 구분한다면, 고전문학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해당하는 고전시가 교육은 고전소설 교육과 함께 고전문학 교육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본고에서 논의의 전제로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하고자 한다면, 광범위하게는 국어교육에서부터 좁게는 문학교육에서 생기는 여러 제반 문제들을 더불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고전문학 작품 속에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교육적 요소를 찾아보고, 고전문학 작품 속에 내재된 그들의 삶이 현재와 단절된 것이 아닌, 우리의 삶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점은 오늘날과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시대의 문학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특히 이러한 연구의 논의 대상으로 시조라는 제재를 한정하여 다루는 것은 그 어느 문학 장르보다도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함께 공존하면서 다양한 계층에 의해 향유되고, 우리 민족의 삶과 정서를 담아왔기 때문이다. 시조가 하나의 문학 형태로 오랫동안 그 명맥을 이어오고, 또한 오늘날까지 현대 시조로 꾸준히 창작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민족의 정서에 잘 부합되는 양식이고, 그것이 문학으로서의 큰 가치를 지녔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국어 교육에서 문학 교육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보면 전통 시가 문학, 특히 시조 문학에 대한 관심은 그 중요성에 비해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것을 그 기본 방향으로 한다. 때문에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도 문학 또는 개별 작품에 대한 해설과 기존의 해석을 단순 수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작품 해석과 비평 활동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시조 교육의 실태는 막연히 전통적 장르라는 식의 이해와 자구적 해독(字句的 解讀), 주제나 소재 파악 등 단편적 감상과 이론적 접근에 치우친 측면이 강했고, 시조에 대한 주된 연구의 방향도 발생학적 접근, 작가론, 형식론적 이해와 같은 일반론적 고찰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때문에 시조는 국어교육, 문학교육의 바람직한 교육 내용의 주요 제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학습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고찰해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시조 교육은 그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한정된 교과서 수록 제재 아래,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감상, 수용되지 못했으며, 학습자로 하여금 여전히 시험을 보기 위한 하나의 텍스트로 받아들여져 왔다. 또한 시조 장르의 내용이 학습되더라도 일반적인 문학 교육이나 시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학습자는 시조 특유의 특성과 묘미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시조를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학습 제재의 하나로서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시대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 시조 교육 방법을 모색하여 학습자의 교육 환경에 알맞은 보다 새로운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시조의 교육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조 고유의 형식, 내용 특성 및 연원, 작품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전달 중심의 시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교수, 학습 상황에서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없을뿐더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자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시조 교육을 위해서는 시조에 관한 학습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적절한 교수, 학습 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를 위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작품 이해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조 교육의 한 방안으로 토의 학습 모형을 활용해 보고자 한다. 이는 토의 학습 중에서도 구성원의 역할이 증대되는 소집단 토의 활동이 실제 시조 지도 과정 중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효용성을 그 전제로 한다. 이러한 방법은 텍스트 자체의 의미 분석을 중요시했던 기존의 시조 교육의 수업 내용이 소홀히 한 학습자의 역할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교사의 자의적 해석이나 제시된 감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감상 방법을 터득하고 작품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함으로써 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본다.

2.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시조 문학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은 논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만, 그에 반해 문학 교육으로서의 시조 교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시조와 관련된 연구물은 크게 시조 작가론과 시조론을 다룬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분화한다면 시조의 연원 형태, 명칭 그리고 구조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작

1) 김선배, 「시조문학 교육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1998.

가론, 형태론, 작품론 등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되었다. 시조 수용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연구로는 시조 문학 작품 해석의 방법론을 다루거나, 시조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 시조,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시조 장르의 교육적 특성을 밝히고, 효율적인 지도 방법을 모색, 실제 학습에의 구체적 적용 과정을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물을 중심으로 그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조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보면, 시조 문학에 대한 원론적 성격을 가진 내용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과제로 많이 주목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시조의 현행 학교 교육의 시조 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와 교육적 측면에 중점을 둔 연구로써 살필 수 있다. 시조 교육 실태를 분석한 논의²⁾의 대부분은 교과

2) 심혜숙, 「고시조 학습 지도의 문학교육론적 접근」, 이화여대, 1998.

-고등학교 국어 I 교과서에 수록된 고시조를 모두 35수로 파악하고 수록된 고시조를 형태별, 내용별, 시대,작가별로 분류하고 교사용 지도서와 참고서, 학력고사 문제지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논의 결과 유교 이념을 담은 고시조가 대부분에 해당하고 사실시조와 옛시조가 거의 수록되지 않았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도덕, 교훈류의 시조가 주를 이루며, 조선 전기의 작품이 지나치게 많고 대부분 사대부의 작품이 많이 수록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장용진, 「시조문학의 구조 연구-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중심으로」, 원광대, 1991.

-고등학교 국어(상)교과서에 수록된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시조의 운율 구조와 주제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조 문학의 미적 특질이 운율 구조와 주제 구조의 양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폈다. 그 결과 4음보 3행시형의 율격 구조가 개별 작품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해명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상익, 「고전문학 지도 방법의 비판을 중심으로」, <국어과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 교학사, 1992.

- 국어 교과서의 고전문학 영역의 지도 방법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교재의 '학습 활동'의 문제는 '학습 목표'와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사용 지도서는 실제 지도 지침서로서 유용한 가치가 있어야 하며, 학생용 자습서의 편찬은 확실성에서 벗어나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차일용, 「국어교과서 소재 시조의 분석」, 경희대, 1991.

- 시조 교재를 시대, 작가, 시조의 형식과 종류, 율격 순으로 검토하였다. 시조의 종류와 형식을 구분하는 명칭의 혼용이 통일되어야 하며 시조의 율격은 음보율로 형식을 규명함이 합리적임을 제시, 시조에 대한 정형적인 시학 이론 정립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박근태, 「초,중,고 시조교육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0.

윤혜원, 「중학교 시조 교육의 실태 조사 연구」, 부산외대 석사논문, 2001.

서의 분석과 학습 방법 탐색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제재 또한 고전 문학 가운데 한정하여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시조 수용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연구 성과는 교육과정 중 시조 문학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시조 교육의 의의를 찾고 이해와 감상을 효율적으로 하는 지도 방법 연구, 시조 창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조 창작을 시도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중 시조문학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김선배³⁾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 자료로 삼아 개화기부터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의 시조 문학 교육의 통시적, 공시적 양상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시조 교육의 사적 연구라고도 할 수 있으며, 시조 문학 교육의 위상을 정립하고, 교육과정의 내용 설계 및 교재 편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대구⁴⁾의 연구자료에서는 시조문학의 이해 및 감상방법, 지도 방법을 그 논의 대상으로 삼고, 시조 지도의 실태와 학습 목표 설정, 학습 제재의 선정, 학습 지도 단계, 평가에 중점을 두고 고시조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고시조를 보는 기준을 정해 교육하기에 효과적인 시조 작품을 선정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실제 지도의 측면이 간과되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재숙⁵⁾의 연구는 시조 교육의 실상을 바탕으로 시조 교육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시조의 교육적 성격과 의미구조, 시조의 창작 지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게 하고, 시조 창작 지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 지금의 문학 교육에서 창작 교육의 필요성

3) 김선배, 「시조문학 교육의 통시적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6.

4) 이대구, 「고시조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연구」, 한국교원대, 1987.

5) 김재숙, 「시조교육연구」, 국민대, 2003.

과 시조 지도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하는 방안으로 시조 창작 지도가 어떤 교육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어 논의했다. 체계적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시조문학 교육을 시도한 연구로는, 독자 반응 이론을 기반으로 토의 및 협력학습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구안한 한철우⁶⁾의 연구가 있으며, 김덕현⁷⁾의 연구도 시조문학 교육의 목표 및 지도 방법, 교수- 학습 모형 구안, 창작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 면에서 돋보이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조 창작(創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⁸⁾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선배의 논문에서는 시조 창작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시조 창작교육 방법을 탐색하여 실제 창작단원의 설계를 시도했다. 이광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조 창작 지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시조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시조 창작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기 지도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김명숙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상과 짓기의 연계를 통한 시조 교육 방법을 탐색하였다. 특히 노산 이은상의 시조를 분석하여, 시조의 전형적인 전개 방식인 동의적 전개방식과 대립적 전개방식, 대화체 등을 시조 짓기 수업에 적용하여 시조 짓기 수업의 전개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조 창작 교육을 시도한 연구 논의들은 대부분 초

6) 한철우, 「토의 및 협동학습을 통한 시조문학교육」, <한국시조작가론>, 국학자료원, 1999.

7) 김덕현, 「시조문학 교육론」, <한국시조작가론>, 국학자료원, 1999.

8) 이광용, 「시조 짓기 지도에 대한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1998.

방현자, 「시조 창작 지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0.

홍운표, 「경제 평시조 노랫말 창작 학습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0.

김선배, 「시조 창작 교육의 실태와 방법 탐색」 <한국 시조 작가론>, 국학자료원, 1999.

김명숙, 「감상과 짓기의 연계를 통한 시조 교육방법」, 서울교대, 1999.

박현동, 「의미 구조 유형을 활용한 시조 창작 지도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1.

소은영, 「시조 창작 지도에 관한 연구」, 전주교대 석사논문, 2000.

하연경, 「시조 창작 교육론」, 연세대 석사논문, 2002.

이홍우, 「문학적 의사소통을 위한 초등학교 시조쓰기 지도 연구」, 춘천교대 석사논문, 2000.

최은남, 「창의적 재량활동 운영을 통한 시조 교육 연구」, 서울교대 석사논문, 2003.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조 창작 지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는 현행 학교 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조 교육의 수용 실태를 교과서에 실린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조,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일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조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과 시조 교육의 실태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참고로 분석, 파악하고자 하며, 시조 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문학 영역의 교수, 학습 모형은 기존의 논저를 참고로 하여 보다 바람직한 시조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시조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이한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연구자는 국어교육으로서의 문학 교육은 먼저 개별 양식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개별 양식의 특성 속에서 그 성질에 맞는 교육 방법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조 양식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논의를 미리 전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시조의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존의 시조에 관한 학설 가운데 원리와 성격적 특징 면에 중점을 두고 귀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시조 작품을 읽거나 쓰는 일이 단순히 일반적 수용 능력이나 표현 능력을 신장하게 하는 과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7차 교육의 국어과 목표와 관련하여 학습자 스스로 시조의 속성을 알아낼 수 있게 하고, 교사의 적절한 안내에 따른 학습자의 실제적 체험 활동을 통해 시조의 종합적 이해로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때문에 국어 교육 목표와 시조의 관계, 문학 교육으로서의 시조의 효용성 문제도 연구 범위에 포함시켜,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과 유리되지 않고 친근하게 향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시조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시조 교육의 의의와 현황

바람직한 고전 문학 교육을 위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은 고전문학 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그 근거를 마련하고, ‘무엇을’ 이라는 내용 설정,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러한 물음에 적절한 대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전문학 교육의 상위 영역인 문학 교육, 더 나아가 문학 교육의 상위 영역인 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즉, 국어교육이라는 큰 범주 아래 국어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고전문학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어과 교육과 시조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본고는 바람직한 시조 문학 교육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로 시조의 교육적 효용성과 그 가치를 살펴보고,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교수, 학습 과정에 수용하기 위해 현행 학교 교육에서의 시조 문학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시조의 교육적 가치

지금까지 시도된 시조 교육의 연구를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살펴보면, 시조라는 특정 장르가 부여하는 형식적 자질들에 주목하면서, 이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연구, 일반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출발점을 마련하여 두고 시조 작품을 체재로 삼는 연구가 있다.⁹⁾ 이 양자의 관점

9) 시조의 3장 구조, 의미, 전개방식, 청자와 화자의 대화구조, 대상과의 관계를 형상화하는 방식, 시조 작품들끼리의 상호 영향을 밝힘으로써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구하고자 한 전자에 해당한다면,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 협동 학습 방법, 토론식 수업 방법 등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을 소개하고, 이 방법을 단위 수업의 현장에 적용하면서 시조를 텍스트로 삼은 논의가 후자에 해당한다.

을 교류하는 관점의 연구로 시조 장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학습자의 표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창작 교육의 방향으로서의 연구가 최근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그 관점의 차이가 어떠한 시조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조가 문학 제재로서 충분히 활용할만한 효용성이 있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학은 원래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한 축이 되어 삶의 보편성을 띤 가치 있는 모습을 띠고 개인과 시대의 정신과 사상을 담는다. 따라서 가치 있는 인간 형성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서 현실의 구조를 총체적으로 인식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문학 교육은 내용으로서의 ‘문학’과 방법으로서의 ‘교육’의 요소를 잘 포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 교육이 단순한 ‘문학교육’이라는 평면적 결합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내용 변인(‘무엇을’에 해당)과 ‘교육’이라는 방법 변인(‘어떻게’에 해당)의 내적, 질적 특성에 따라 단순한 ‘문학 교육’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학 교육 그 자체의 의미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문학 교육이 문학과 교육이 평면적으로 결합한 상태에서 한 단계 상승된 유기화된 개념임을 의미한다.¹⁰⁾

때문에 시조문학 교육도 단순히 문학의 개념적 지식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 문학의 도덕적 인간 교육의 의의를 넘어서, 시조 문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대부 시조를 중심으로 그 교육성을 살펴본다면, 도덕적 인간 교육, 현행 문학 교육에 있어서는 정의적 영역의 교육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 허왕옥, 「고전시가교육의 이해」, 보고서. 2004. p 329~330.

10) 구인한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2. p36.

기도 하지만, 지나친 주입식 위주의 도덕성 함양, 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한 문학 교육은 자칫하면, 학습자가 시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시조 문학을 사대부적 관점에서 교훈적 지식 전달을 위한 도구로만 파악할 경우, 그것을 통해 학습자의 문학적 즐거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¹¹⁾

시조는 타 문학 장르에 비해 민족 문학으로서 역사성과 전통성을 더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즉, 어느 문학 장르보다도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와 함께 공존하면서 소멸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삶과 정서를 담아왔다.¹²⁾ 때문에 시조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민족 정서를 익히고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접함으로써 나름의 사상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또한, 시조의 형식적 특징이 독특한 의사 진술의 장치라는 구조를 지녔고, ‘자신의 태도, 의지, 정서를 여러 사람에게 밝히는 형식의 장치’라는 점도 타 문학 장르와 변별되는 점으로 볼 수 있다.¹³⁾ 이런 점에서 볼 때 시조라는 양식의 문학 제재로서의 효용성은 다른 문학 장르가 학습자의 사고 발전의 과정을 돕는 일반적인 기능과 함께, 시조 장르의 역사성과 전통성에 따른 교육성 또한 간과 할 수 없다.

11) 실질적으로 제 4차 학문중심 국어과 교육과정까지는 강의와 주입식 교육의 형태로 교훈적 내용 전달에 치중하였다 하더라도, 방법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된 5차 교육 과정 이후에도 이러한 도덕적 교훈 전달을 주요 교육 방법의 내용으로 택하고 있는 현실은 시조 교육 현장의 문제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2) 시조는 일찍이 고려 말에 그 정형의 틀이 형성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층을 초월하여 창작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장르이다. 형식과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자연스런 호흡 마디와도 일치하는 질서를 담아 각 시대의 생활양식에 알맞은 과정을 성취한 것이 시조였다. 시조는 국어의 율격을 쉽게 살려 부를 수 있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하 모든 계층이 함께 향유하는 장르로 확산될 수 있었다. 발생 초기에는 사대부들의 관념을 노래한 시가로 출발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평민들의 삶을 담아내는 사실시조로, 그리고 시조 부흥 운동기를 거쳐 오늘날 현대시조로 정착되었다. 시대와 삶의 형태가 변하면 시조 자체의 양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조는 시대의 변화하는 양식을 유연하게 반영해, 가장 다수의 작품이 현존할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창작, 가창되는 생명력 있는 장르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3) 김선배, 「시조 문학 교육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1998. p 49.

다음으로, 시조는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었던 국민 문학 적 면모를 가진 양식이며, 사대부의 사상을 담거나 때로는 그 향유범위를 넓혀 민중들의 애환을 담을 수 있었던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지금까지 공존할 수 있었다. 고려 말에 발생한 시조가 지금까지 ‘현대시조’ 또는 ‘시조시’ 라는 이름으로 창작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시조 텍스트가 단순히 감상의 기능을 넘어 창작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특히 현재 국어 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표현 교육’ 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덧붙인다면, 시조 장르의 문학 제재로서의 활용은 학습자의 정서순화와 올바른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조에는 인격 수양과 ‘충’이나 ‘효’와 같은 유교적, 도덕적 관념의 내용을 담은 것들이 많은데, 현 시대를 사는 학습자의 행동발달과 인격 형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학습자와 유리되고 고리타분한 고전문학 제재로서의 시조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재를 사용, 시조 창작을 생활화함으로써 일상의 경험과 순간의 느낌과 생각들을 시조의 안정된 형식에 담아 표현한다는 것으로도 시조의 교육적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게 수용될 수 있는 점은 학습자가 작품의 의미를 자신의 일상생활에 근거하여 수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의식을 확장, 바람직한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활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시조 장르는 감상과 수용과 창작 면에서 학습자와 작품과의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의와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2. 현행 교육과정 시조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조가 문학 제재로서 충분한 효용성과 교육적 가치와 있다면, 현행 학교 교육에서는 과연 이러한 시조의 교육적 가치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을까.

이러한 논의의 과정으로 먼저 제 7차 교육과정의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시조 작품을 통하여 문학 교육에서 시조가 차지하고 있는 그 교육적 비중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시조문학의 이론과 내용이 국어교육, 문학 교육의 영역에 어떠한 모습과 내용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살피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행 시조 교육의 실태를 점검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적절한 시조 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는 보통 교과와 하나로 구분되며, 국민 기본 공통 교과인 국어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 생활, 심화 선택 과목인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제재를 살펴보고, 시조 작품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지, 그에 따른 학습 내용과 활동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¹⁴⁾

14) 수록된 제재 선정의 기준은 국민 기본 공통 교과인 '국어' 과목에 실린 것을 그 기본으로 한다. 그 이유는 국민 기본 공통인 국어 교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국민 기본 공통 교육과정 10학년)까지 일반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과이지만, 심화 과목의 경우(문학)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택 이수할 수 있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표 1>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시조 텍스트 수용 양상 15)

교재	작품명	작자	단원명 - 학습 단계	학습목표 (교수, 학습내용)	비고
국어 1-2	'훈민가' -어버이 살아실 제	정철	4. 시의 세계 -단원의 길잡이 (도입 제재)	·시의 언어가 지닌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시에 드러난 현실 상황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다.	·고시조 ·1수/4 수
	봉선화	김상옥	4. 시의 세계 (1)봉선화 - 본시 활동	·시조의 운율을 느끼며 감상할 수 있다. ·주된 정서와 이를 뒷받침 하는 소재를 찾을 수 있다. 【읽기 전 활동】 ·봉선화를 떠올리며, '봉선화' 노래 부르기 ·봉선화에 관한 이야기나 추억 떠올려 보기 【읽기 중 활동】 ·시조의 운율을 느끼며 낭송하고 감상하기 【내용 학습】 · '봉선화' 각 연의 내용 정리하기 · 시의 주된 정서를 생각하고, 뒷받침하는 소재 찾기 【목표 학습】 ·시를 운율에 맞추어 끊어 읽기	·현대시 조 ·전문수 록 ·본시재 제
	<오류가 > '동기로 세 몸 되어~'	박인로		【적용 학습】 '봉선화'의 운율과 시조('박인로의 '동기로~')의 운율 비교하기	·고시조 ·1수
	'바람이 눈을 몰아~'	안민영	(4) 우리가 눈발이라면 - 본시 활동 학습자료	【적용학습】 '우리가 눈발이라면'의 눈과 '안민영의 시조에 쓰인 눈의 의미 생각해 보기	고시조 ·1수.6 수

15) 중학교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참조.

국어 2-1	<훈민가 > '이고 진 저 늬은이~'	정철	3. 우리 고전의 맛과 멋 - 보충, 심화 학습	·고전 작품에 나타난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고전문학 작품의 가치를 알고, 즐겨 있는 태도를 가진다. ·'훈민가'의 주제 말해보기 ·'훈민가'를 읽고 지은이의 신분 추측하기 ·'개를 여남은이나'를 읽고 느낌 말하기 ·말하는 이는 자기 집의 개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말해보기 ·주어진 소재를 바탕으로 시조 지어보기	·고시조 1수/16 수 ·사설시 조
	'개를 여남은이 나 기르되'	작자 미상			
생활 국어 2-1	'보리밥 푼나물을 '	윤선도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개념을 말할 수 있다.	·고시조 ·1수/2 수
			(1)국어의 언어적 특징 - 본시 활동	·역사성의 개념 알기 (시조의 중장을 현대어로 바꾸어 보기)	
국어 3-1	독방길	유재영	1. 시의 표현	·시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며 시를 감상할 수 있다.	·현대시 조
			(4)독방길 - 본시 활동	【내용 학습】 · 시조의 정경을 묘사해 보기 · 시조의 분위기를 살려 주는 소재를 찾고, 소재들이 주는 느낌 적어보기	·현대시 조 ·본시재 제
국어 3-2	사랑이 그 어떨더냐 사랑 사랑	이명한/ 작자 미상	4. 고전문학의 감상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설명할 수 있다. ·고전문학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1)한국문학의 개념과 특질 - 본시 활동	【본문학습】 · 사랑에 관한 두 시조를 비교하면서, 여유로운 시 형식 알기	·평시조 /사설시 조 ·설명문 내

	굽이굽이				삽입
	십년을 경영하여	송순		· 자연 친화의 문학이 한국 문학의 특질임을 알기	· 고시조 · 설명문 내 삽입 · 전문수 록
	뭇버들 골라 꺾어	홍량	(2) 가시리 - 본시 활동	【목표 학습】 · ‘가시리’를 ‘뭇버들 골라 꺾어’ · ‘아리랑’과 비교하여 감상하고 한국 문학의 특질 알기	· 고시조 · 전문수 록
	산촌에 눈이 오니 논밭 갈아 김 매고	신흥 /작자 미상	(3) 시조 두 편 - 본시 활동	【내용 학습】 · 두 시조의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표현하기 【목표 학습】 ·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두 시조의 차이점을 말해보고, 한국 문학의 특질 말해보기 · ‘논밭 갈아 김 매고’를 노래로 만들어 불러보기	· 고시조 · 전문수 록 · 본시제 재
	잔 들고 혼자 앉아	윤선도	보충, 심화 학습	·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살펴보기 · 작품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특질 알기	· 고시조 · 1수/3 수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에 수록된 시조 작품¹⁶⁾은 14편인데, 「생활국어」(2-1)에 수록된 한 작품을 제외하면 모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¹⁷⁾ 그러나 시조 텍스트의 대부분이 본시 학습 자료로 사용되기 보다는

16) 수록작품의 작자의 경우, 사설시조 3편을 제외하면 모두 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인데, 본시 단원이 아닌 설명문에 삽입된 작품이나 도입 및 학습 활동을 위한 부차 자료인 경우에는 대체로 작자를 밝히지 않았다. 고시조의 작가 계층을 보면 8명의 실명 작가 중 양반 사대부 6명, 가객 1명, 기녀 1명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작가의 작품은 2편에 해당되었다. 수록된 유형은 고시조 단독 구성, 현대시조 단독 구성, 고시조와 현대시조 혼합 구성, 설명문 속에 삽입된 구성, 현대시와 혼합된 구성, 다른 고전시가와 혼합된 구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7) 제 7차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영역별 구성 방식에다 목표별 구성을 동시에 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대단원의 서두에 교육과정의 학년별 영역별 학습 내용을 학습 목표로 진술하여 제시한다. 그러면서도 지나친 영역의 구분이 학습자의 실제 언어 활동과 괴리되는 면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부분적으로 영역 간 통합을 꾀하여,

부차 학습 자료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위에 제시된 시조 텍스트의 편성 단원과 학습 내용을 보면 실제 수업의 과정에서 시조 문학은 단순히 감상의 측면으로서만 수용되지 않음을 살필 수 있다.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정철의 ‘훈민가’나 박인로의 ‘오륜가’의 경우에도 시조 내용을 본시 학습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현대시조 ‘봉선화’를 학습하기 위한 도입 자료나 부수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고시조 고유의 율격이나 짜임을 정확히 알게 하기보다는 현대시조의 운율과 비교하여 낭송해 보게 함으로써 단편적인 수준의 시조 형식을 알게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철의 ‘훈민가’를 통해서는 “이 시조의 주제를 간단히 말해보자.”, “이 시조를 쓴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 등을 추측해 보자.”라는 두 가지 활동을 제시하였다. 사설시조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에서도 주제, 작자의 신분이나 나이 추측하기 활동과 읽고 난 후의 느낌 말하기 등의 활동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조 짓기’는 창작 활동을 위한 어떤 안내나 전략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조 제재들이 본시 학습 이외의 보충, 심화 활동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단원의 학습 내용을 보충, 심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보충, 심화의 내용을 개인별 과제 형태로 제시하거나,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함께 훑어보는 정도로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윤선도 시조의 경우 보다 심화된 감상을 통해, 자연 친화의 정서라든가, 당시 사대부들의 흥취를 느껴봄으로써 지금의 생활과 비교하여 충분히 학습자 스스로 내재화하여 심화된 감상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생활국어의 제재로만 수록됨으로써 국어의 언어적 특징

「국어」에서는 주로 ‘읽기’, ‘문학’ 영역을 「생활국어」에서는 ‘듣기’, ‘말하기’, ‘쓰기’, ‘국어지식’ 영역을 주로 다루었다. 시조 문학의 경우 주로 ‘문학’과 ‘읽기’에 수록되었다.

을 파악하기 위한 도움 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다. 즉, 시조의 종장을 현대어로 바꾸어보는 활동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국어의 언어적 특징인 역사성을 알게 하는 자료로 사용되어 보다 심화된 학습 내용을 지도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현행 3학년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 편성의 경우, 나름대로 다양한 시조 제재를 수용하여 본시 활동으로 시조 장르를 학습하고 있다. 소단원 (1) ‘한국문학의 개념과 특질’¹⁸⁾에 수록된 이명한의 ‘사랑이 그 어떻더냐’와 사설시조 ‘사랑 사랑 굽이 굽이’ 두 작품을 통해 ‘우리 시가 형식의 자유로움’을 설명하고 있으며, ‘자연 친화의 문학적 특질’에서는 송순의 ‘십년을 경영하여’를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소단원 (2) ‘가시리’ 단원의 목표 학습에는 민요 ‘아리랑’과 홍랑의 시조 ‘뗏버들 골라 꺾어’가 주제 중심 단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세 작품은 모두 이별을 노래한 작품으로 소단원 (1)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특질을 살펴보는 활동 자료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시조문학이 ‘현실 중심의 문학’ ‘인간 중심의 문학’ ‘여유로운 시 형식’ ‘자연 친화의 문학’ 이라는 내용면을 아우르는 한국 문학의 특질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 장르임이 설명되었지만, 시조의 원리나 성격, 그리고 문학 제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본질적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단원 (3) ‘시조 두 편’ 단원은 시조를 감상하고 작품 속에 드러난 우리 시가 문학의 특질을 살펴보기 위해 별도로 편성된 단원으로 중학교 현행

18)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문학의 특질은 ‘여유로운 시 형식’, ‘양식의 다양성’, ‘현실 중심의 문학’, ‘인간 중심의 문학’, ‘자연 친화의 문학’, ‘웃음으로 눈물 닦기’의 여섯 가지 특질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단원 집필자인 김대행이 정리한 한국 문학의 전반적인 특질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김대행의 제시글을 통해 교과서에 제시된 여섯 가지가 한국문학 특질의 전부인 것으로 파악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 문학의 특질을 더욱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안내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조 교육의 실태를 점검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위이라고 본다. 때문에 그 학습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단위에서는 신희의 ‘산촌에 눈이 오니’와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논밭 갈아 김매고’를 학습 제재로 수용하여 평시조와 사설시조 형식의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특질을 생각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읽기 전 활동’에서는 산수화 감상이라는 시각적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으며, ‘읽기 중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교수, 학습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이 시조를 익숙하게 낭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들과 함께 소리를 맞추어 낭송도 해보고, 눈으로 묵독하기도 하고, 친구들의 낭송을 들어보기도 하면서 반복해서 시조를 낭송하게 한다. 어려운 어휘들은 미리 어휘 목록을 만들어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 시조는 가락이 있는 시가 문학이므로 운율을 살려 낭송하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시조를 능숙하게 낭송한다고 판단되면 시조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하고, 시 속에 담긴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한다.¹⁹⁾

이어지는 ‘읽기 후 활동’은 크게 ‘내용 학습’과 ‘목표 학습’으로 나누어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 학습’에서는 두 시조 작품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일기(日記)형식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시 내용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 드러난 삶의 모습을 살피고 그 모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표 학습’에서는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두 시조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그 차이점을 참고로 하여 (1)‘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시가 문학에 드러난 특질을 도출해 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설시조 ‘논밭 갈아 김 매고’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

19) 중학교 교사용지도서 국어. 생활국어(3-2), 교육인적자원부, 2003. p254

정하고, 사설시조의 특징에 유념하여 노래를 불러 보게 하는 활동은 작품 감상의 수준을 높이는 지도 방안의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통해 시조 텍스트 수용상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시조 텍스트 수록 특징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조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특질과 민족의 사상, 정서, 삶의 태도 이해에 접근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교육적 수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조 텍스트가 문학 제재로서의 효용성과 그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다수의 시조 제재가 본시 활동 이외의 자료로 수용²⁰⁾되었기 때문에 시조 장르의 원리나 성격과 같은 보다 본질적인 시조 장르 특성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할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국민 기본 공통 교과인 국어 교과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국민 기본 공통 교육과정 10학년)까지 일반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과이지만, 심화 과목의 경우(문학)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택 적으로 이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시조 제재 수용 양상²¹⁾을 보더라도 다양한 시조 텍스트를 활용한

20) 이전 교과서의 특징이 본시 작품의 학습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시조 작품 자체보다는 장르의 전반적 양상을 드러내고자 한 데 초점이 맞춰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 편찬이 꼭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을 본시 작품에 수용하여 지식 전달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작품을 수용했다면, 현행 교과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활동 중심 교재를 추구했다는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21) 고등학교 교과서 제재의 경우 이방원과 정몽주의 시조가 실려 있지만, 이러한 시조 작품의 경우에도 시조가 창작된 사회, 역사적 배경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언어 표현 활동의 도움 자료로만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본시 제대로 다루고 있는 시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자연 진화’의 주제적 측면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학습자로 하여금 시조 내용이나 주제에 대한 경직된 선입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시조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종전 교육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내용 중심 학습에서 활동 중심 교재 편성으로 전환함에 따라 학습자의 접근성은 향상되었다 할지라도 학습 제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조 텍스트를 수록하지 못했다는 점, 장르 정체성에 맞는 텍스트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점으로 지적된다. 교과서는 하나의 고정된 텍스트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융통성 있게 조직하여 교육 현장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보충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교사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지양하고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학년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시조 교육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중심 텍스트로 설정하는 시조 제재는 기본 교과서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현재 7차 중학교 교과서 체계의 특성상 시조 단원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 소집단 토의 활동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본시 내용을 학습 한 후, 보충, 심화 학습 시간에 시조 장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교사의 재량권 아래 보다 더 다양한 보강 텍스트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음을 미리 전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은 더 나아가 고등학교 문학 교재의 다양하고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Ⅲ. 소집단 토의 활동의 교육적 가치

1. 소집단 토의 활동의 개념과 필요성

제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문학’ 영역의 성격을 살펴 보면, 문학 작품을 학습자 스스로 찾아 읽고 토론하는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문학’ 영역 교수- 학습의 주된 목적이 문학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²²⁾

때문에 제 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강조, 문제 해결과정(문제 인식, 문제 이해, 해결 계획 수립, 해결 시행, 반성 등)과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기존의 강의법에 의한 학습 내용의 이해 뿐 아니라, 토의, 토론, 현장학습, 협동학습 등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에 적합한 다양한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수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²³⁾ 이러한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육에서는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낼 수 있는 학습자의 활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22) 박영목 외,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1. p327.

23) 제 7차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법에서는 ‘강의, 토론, 현장학습, 협동학습 등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 학습을 전개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 「국어과 교육과정」.2003.

- (가)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강조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 (나)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활동을 권장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적극 수용한다.
- (다)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 (라)다른 사람의 의견을 성실하게 듣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 (마)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바)의견과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 (사)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한다.

학습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결과를 강조했을 때 교사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최종적 평가만을 학습의 주로 삼는다. 그러나 학습 과정을 강조할 때에는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다. 즉, 학생들이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생성하도록 장려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지식과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조력자, 촉진자,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육 방법의 하나로 소집단 토의 활동²⁴⁾을 제안하고자 한다. 시조 문학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며 내면화하는데 있어서도, 개별학습의 형태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끼리의 상호작용, 혹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위한 토의 학습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소집단 토의 활동을 하면 다음과 같

24) 소집단 수업 운영의 교육적 가치를 설명한 기존의 논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최동근 외 「교육 방법의 교육 공학적 접근」, 교육과학사, 1997. p159.

- ① 토의학습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 소통 기술을 연습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 ② 토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로부터 많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③ 토의 학습은 학생들에게 비판적이고 평가적인 사고와 듣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 ④ 학생들에게 자신의 사고를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 ⑤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 ⑥ 학생들에게 민주적 과정의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

* 박성익, 「교수, 학습 방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97. p.257.

- ① 열등학생에게는 촉진학습의 과정을 제공하게 되고, 우수 학생에게는 심화 학습의 과정을 제공하게 된다.
- ② 집단 중심의 개별화 수업을 통하여 협동학습 태도를 길러주게 되고 나아가서는 인간화 교육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다
- ③ 학생 각자는 개인마다 뛰어난 측면의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학생 서로 간에 그러한 능력의 인정을 통해 학생 모두에게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성취감의 경험은 긍정적 자아개념 및 정의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은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학습자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새롭게 의미 구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과정에 참여, 생각 교환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이는 학습자의 실질적인 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말하기, 듣기와 같은 의사 소통 활동 부분에 대한 교육은 강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토의의 과정 중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때문에 이러한 소집단 토의 활동은 학습자의 실질적인 언어 사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둘째, 하나의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어 보는 과정을 통해, 개개인마다 작품의 감상이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 작품은 고정된 실체로서 감상되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작품과 관련된 소집단 활동의 과정을 통해 작품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되고, 학습자들은 학습 내용에 대해 각자 다른 배경 지식을 활용,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셋째, 소집단 활동을 통한 학습은 자신 뿐 아니라,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성취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긍정적 상호 의존에 기초한다. 소집단 활동은 주어진 주제에 따른 활동 계획 수립과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 내 모든 구성원들이 명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담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에 관한 책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넷째, 효율적인 자기 주도적 학습과 토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기 점검의 경험을 가질 수 있다. 1차시 안에 행해지든 여러 차시에 걸쳐 이루어지든 간에, 협력학습을 통한 소집단 활동의 과정 안에는 반드시 자기 주도적 학습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정해진 주제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고,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구성원들의 자료를 읽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점을 발견,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은 자신의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집단 토의 활동의 효과를 생각할 때, ‘소집단 토의 활동’ 학습에 ‘시조 지도 방안’을 절충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집단 토의 활동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것 이상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시조 교육 방법의 하나로 소집단 활동을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제 7차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부합,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본다.

2. 소집단 활동을 활용한 수업 방법

1) 전문가 협력 학습 (JIGSAW)모형

소집단 토의 활동에 해당하는 수업 과정의 하나로 본고에서는 직소 (JIGSAW) 수업 모형²⁵⁾을 검토함으로써 시조 문학 교육을 위해 적절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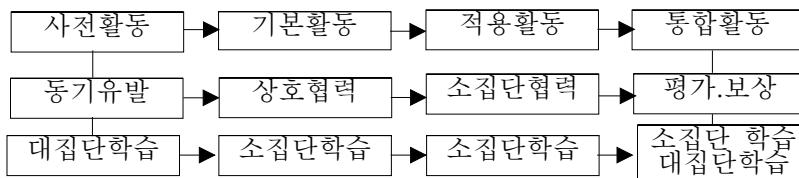
25)Jigsaw를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곡선을 켜는데 사용하는 실패’이란 뜻이고, Jigsaw Puzzel은 ‘조각 그림 맞추기’ 퍼즐이다. 학습에서 경쟁적이고 일방적인 학습이 아닌 서로 의존적이고 협동적인 집단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과정이 직소우 퍼즐과 같다고 하여 Jigsaw란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그소우’ ‘직소우’ ‘직소’ 등 통일되지 않은 여러 용어로 불리다가 열린 교육 학회에서 ‘직소’로 통일하기로 하였고, ‘전문가 협력 학습’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본고에서도 이를 그대로 따라 두 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사들이 어떠한 수업 모형을 적용할 때 자주 발견되는 문제는 그 모형이 어떤 학습 내용 혹은 활동에 적합한지를 잘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모형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수업 모형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그 모형을 잘못 이해하여 모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기존의 수업이 강의법을 바탕으로 한 시조 텍스트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지식 전달 수업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이를 지양하고 학생들이 스스로가 소집단을 구성,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조 텍스트에 대한 감상을 보다 의미 있게 내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학습자들의 주도적인 활동 내용에 중점을 둔 다양한 학습 모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전문가 협력 학습모형(Jigsaw), 과제 분담 모형(STAD)²⁶⁾, 소집단 게임 모형(TGT)²⁷⁾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어의 개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자 한다.

26) STAD(성취과제분담모형) Student Team Achivement Division 수업은 보상 체제가 동료간의 상호 작용과 학습동기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개인차가 심한 수학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업형태이다. 팀의 보상을 전제로 하는 소집단 협력 학습을 통한 수학수업은 학습자 개개인이 팀의 다른 학생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게 하고 의사교환을 통하여 논리적 합리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학습 태도를 지니게 한다. 다음은 STAD 수업 교수 학습 모형이다.



27) TGT협동학습모형(팀경쟁학습) :Team -Games- Tournaments)

- 1973년 Devices & Edward가 개발한 모형으로 팀구성,수업방법, 연습문제지 등을 이용한 협동학습이며, 우수한 팀의 인정 등을 포함한 것으로 성취과제 모형과 유사하지만,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게임을 이용하여 각 팀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 집단간의 토너먼트 게임은 개별학습 성취를 나타내는 게임이며, 매주 최우수 팀이 선정된다.

현장과, 교실 상황, 시간 배당, 학생들의 모둠 구성 문제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보았을 때, 시조 문학 수업을 위한 것으로 직소(Jigsaw) 모형을 활용한 수업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직소(Jigsaw) 모형은 기초 집단의 학생들이 각자 맡은 주제별로 전문가 집단으로 흩어져 그 주제를 철저히 공부한 다음, 다시 자기 소속 집단으로 돌아와서 각자가 공부한 주제를 기초 집단 동료들에게 가르쳐 주는 모형이다. 직소(Jigsaw)모형의 수업 절차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2) 소집단 활동의 수업 단계

소집단 활동의 1단계는 ‘수업의 안내’와 ‘소집단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시조 작품을 어떤 활동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소집단 활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수업 계획과 평가 방법 등에 자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교사는 수업 계획에 대한 안내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수업의 방향을 학습자 개인이 인지하여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모둠 계획서, 모둠 활동지, 모둠 평가지 등을 모두 별도 자료로 나누어 주고 활동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중간 활동 과정, 결과물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일정한 형식에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의 2단계는 본격적인 모둠 활동, 소집단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활동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역할 분담의 과정이다. 모든 소집단 활동의 과

· 각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집단에 소속된 비슷한 능력을 가진 두 명의 학생들과 토너먼트 책상에서 만난다. 각 토너먼트 테이블의 승자는 자기집단을 위해 점수를 얻는다.

정과 역할 분담의 결과는 앞에서 배부된 모둠계획서, 모둠활동지 등의 일정 양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한다. 구성원의 역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소집단 활동 계획과 방향을 세우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적으로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어진 주제에 따라 스스로 준비한 자료 수집의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 과정이 필요하다. 준비한 자료는 소집단 연구 주제별로 함께 돌려가며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며 활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활동 뒤에는 반드시 소집단 내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를 실시하여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음 단계는 소집단 별로 활동 과정과 결과 내용, 평가 내용을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집단 내에서 각자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유의미한 학습이지만, 소집단 별로 자신들의 집단에서 토의한 내용을 정리, 발표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소집단 활동을 적용한 수업 운영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소집단 활동의 수업 단계

단계	활동순서	구체적 활동 내용
1단계	-수업의 안내 및 소집단 조직	· 사전 수업 안내 · 소집단 조직
2단계	-소집단 활동	· 소집단 내 역할 분담 · 활동의 계획 수립 · 활동 주제에 따른 개별 자료 수집 및 개별 활동 · 소집단 내 협력 학습 · 소집단 내 자기 평가 및 상호평가
3단계	-활동 내용 발표	· 활동 과정 및 결과 발표 · 교사 평가 · 교사의 정리 및 보충 설명

시조 문학 수업에 소집단 활동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제시된 활동 내용에 따라 각

단계에서 더 중요하게 지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차지도 융통성 있게 편성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소집단 활동은 시조 문학 지도의 하나의 효율적 방법일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행 평가의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평가 계획을 자세히 안내하고, 반드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토의 활동을 활용한 시조 지도 방안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시조의 원리와 성격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 관한 학습을 위한 모형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 즉, 직소(JIGSAW)모형을 활용할 것이며, 감상, 창작영역의 활동은 일반적인 소집단 토의 활동 과정을 따르고자 한다.

IV. 소집단 토의 활동을 통한 시조 교육 방안

1. 시조의 원리와 성격 교육 방안

시조의 개념이나 형식적 측면의 지적 영역에 관한 학습은 학습자가 시조 감상을 하기 전에 미리 선행 되어야 할 기본적인 학습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시조의 특징, 형식, 시대 상황, 작가 등에 대한 선행 지식에 대한 고려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학습은 개인별 과제 학습으로 제시하거나, 교사가 미리 제시한 활동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집단 내의 과제 분담 형식으로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소집단 내의 과제 분담 활동을 활용할 경우,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에 대한 탐구, 조사의 결과를 다른 학습자와 토의하는 과정은 학생 스스로 그 원리와 성격을 찾아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기존의 수업 방법에서는 시조의 원리와 성격에 관해 기본적으로 숙지 되어야 할 학습 내용이 교사 중심의 지식 교육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했으며, 교사는 이러한 인지적 영역의 내용 학습에 학생들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하고자하는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JIGSAW모형)은 구성원들이 서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시조 개념에 대한 학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협력된 토의의 결과를 발표 한 후, 교사의 내용 정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전달보다는 교사가 적절히 구성한 활동지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항은 작품 감상에 오히려 혼란

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교사는 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과제 학습장을 작성하여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형식에 맞게 알맞은 내용을 조사 해오도록 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과제학습장에 대한 내용은 교사가 수업시간 내에 제시하는 보충자료를 활용하여 함께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은 해온 과제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시조의 일반적 기초 이론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수업 시간의 절약으로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본시 수업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과제학습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업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므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론적 측면에 관한 지도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감상과 이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교사의 체계적인 설명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교수, 학습 과정안의 하나인 전문가 협력학습(JIGSAW)모형을 실제 수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문가 협력 학습(JIGSAW)모형을 활용한 교수, 학습 과정

<전문가 협력 학습 (JIGSAW) 모형을 적용한 교수, 학습 과정안>

-전문가 협력 학습(JIGSAW)모형 3단계 수업-

①모집단 활동

교사는 수업 주제를 선택하여 이번 수업 계획의 대강을 설명해준다.
그런 다음 5~6명으로 구성된 모집단에 몇 가지 하위 주제가 질문의
형식으로 적혀있는 전문가 용지(expert sheet)를 배포한다.
이 하위 주제들을 소집단 구성원 각자에게 하나씩 할당되게 하며, 각
주제를 맡은 구성원은 그 하위 주제에 한하여 전문가가 된다.



② 전문가 활동

각각의 소집단에서 동일한 주제를 맡은 각 소집단의 전문가끼리 따로
전문가 소집단을 형성하여 함께 학습 활동을 한다.

전문가들은 그 하위 주제를 공부한 다음 각자의 모집단에 돌아가서 모
집단의 동료들에게 어떻게 핵심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인가를 중심으로
토론하게 된다. 이 때 전문가 용지와 전문가 학습지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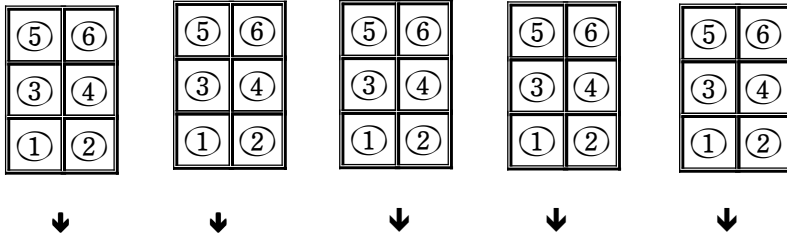
③ 모집단의 재 소집

전문가 집단의 활동이 끝난 후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전문
적 지식을 소집단 내의 다른 동료들에게 전수한다. 다른 동료들은 자
기가 전문적으로 선택한 것 외에는 전혀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영역은 전적으로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동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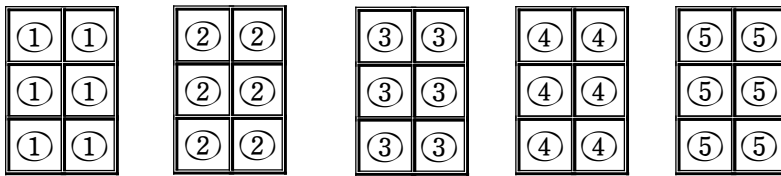
전문가 협력 학습 (JIGSAW)모형을 수업 현장에 적용할 경우 미리 전체
되어 고려해야 할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직소우 수업 모형 준비 과정 ① - 좌석 배치도

* 모집단 좌석 배치



* 전문가 집단 좌석 배치



<그림 2> 직소우 수업 모형 준비 과정 ② - 소주제 분담 과제

◆ 소주제 분담 과제 ◆

- ① 시조의 개념과 발생 (심화)
- ② 시조의 형식
- ③ 시조의 종류
- ④ 시조의 작자층
- ⑤ 시조의 내용 (심화)
- ⑥ 시조집의 편찬과 가단의 형성(심화)

소집단 구성은 학급 내 정원이 30~35명 정도가 된다고 가정하고, 6명씩 5~6개 모듈로 소집단을 구성한다. 이러한 조직 과정은 교실 상황이나 분담 과제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다. 소주제 분담 과제 중

‘심화’ 라고 설정한 시조 원리에 관한 이론은 경우에 따라 현 중학교 학생들이 다루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과제의 내용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자 스스로 과제를 해 오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심화된 내용은 교사가 수업 시간 내에 별도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나머지 내용에 관한 부분(형식, 종류, 작자층)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각의 모듈별 과제로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시조의 원리와 성격적 측면에 관한 전문가 협력 학습(JIGSAW) 모형 과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심화된 내용까지 포함시켜 그 활용 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표 3 > 직소우(JIGSAW)모형의 수업 지도안

단 원		4. 고전문학의 감상 (3)시조 두 편		
학 습 목 표		· 시조의 일반적인 원리와 특성을 안다.		
단 계	학 습 과 정	주 요 교 수, 학 습 활 동 내 용	학 습 형 태	학 습 자 료 및 유 의 점
도 입	전시학 습내용 확인 본시학 습목표 제시	· 학습주제 및 학습형태에 대한 안내 · 전문가 협력학습 방법에 관련한 간단한 설명	전체 학습	
전개 (30)분	모집단 별 의논	◆주요개념 참고자료 배부 1.모집단활동 (5개조로 편성) →전문가 용지를 보고 학습해야 할 소주제 분담	Jigsaw 협동학습	학생들의 원활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함

	<p>*소집단 분담 과제</p> <p>-1모둠: 시조의 개념과 발생 -2모둠: 시조의 형식과 종류 -3모둠: 시조의 작자층 -4모둠: 시조의 내용 -5모둠: 시조집의 편찬과 가단의 형성 →분담된 과제를 가지고 다시 자리 배치를 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모임.</p> <p>2. 전문 집단 활동</p> <p>→ 전문모둠에서 준비된 자료로 문제해결 → 전문조원끼리 해결된 문제로 토의 (전문가 학습지에 요약 정리) →모집단으로 돌아옴.</p> <p>3. 모집단활동</p> <p>→조원들에게 조사된 내용 설명 →설명 들으며 종합 학습지에 기록 →이해 안 되는 내용을 질문하여 분명히 이해해두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p>		<p>전문조 소집단 순회 (이동할 때 소란해지 지 않도록 주의시킴)</p> <p>모집단별 발표</p>
정 리 (3분)	· 종합 학습지를 중심으로 정리 교사의 보충 설명으로 중심 내용 확인		
수 행 평 가 (5분)	수행평가지 배부	개 별 학 습	실물화상 기
차시예 고	·집단별 과제 제시		

교사가 제시한 과제 분담의 성격에 따라 모둠 별로 구성원들이 각각 역할과 과제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교사는 이 활동에 구성원 모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적절하게 과제를 분담, 배분하였는지를 점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학습할 내용에 대한 과제를 적절하게 활동지로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전문가 용지 (expert sheet)라고도 하는데, 5~6가지 주제가 질문의 형식으로 적혀 있

는 학습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전문가 활동지의 기능은 전문가 집단이 같이 학습을 할 때 적절하게 범위와 방향을 안내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실제 수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학습 모형 과정을 살피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 모형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²⁸⁾

2) 시조의 원리와 성격 교육 방안의 실제

해결 내용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그 과정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소집단 별로 모둠 대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집단별로 모인 모둠원의 특성을 확인하고 교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학습자 스스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돌아가면서 한번씩은 모두 모둠 대표로 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소집단원들은 교사가 제시한 학습 활동지(전문가 용지)의 내용에 따라 각자 조사, 공부한 내용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시조의 개념과 발생

* 학습 활동지(전문가 용지-①)

★ 이 주제는 내가 전문가! ★
☞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내가 전문가’가 되어 모둠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28) 본고에서 제시한 소집단 토의 활동 과정은 연구자가 구성한 ‘전문가 학습 용지’를 활용하여 토의 학습할 경우 학습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의 과정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토의 진행 과정은 현행 중학교 3학년 30명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 용지를 가지고 응답한 반응을 참고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토의 활동 과정을 재구성하여 보았음을 밝혀 둔다.

<p>각자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새롭게 모인 전문가 집단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해보고, 공통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잘 정리해 봅시다.</p>
<p>*토의할 주제, 내용 : 시조의 개념과 발생</p>
<p>1. 시조란 무엇일까요? ▶</p>
<p>2. 시조는 언제부터 창작되었으며, 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p>
<p>3. 시조의 다른 명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p>
<p>4. '시조'와 '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p>
<p>5. '시조'와 '시조창' 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p>

<1모둠 토의 활동>

모둠 대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받은 내용은 '시조의 개념과 발생' 이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학자들마다 논란거리가 많아서 정리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기도 해.

학생1: 맞아. 난 시조의 발생에 관해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 봤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고, 향가, 고려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생소한 장르와 연관 짓는 것이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었어.

모둠 대표: 그랬구나. 그럼 우리 같이 첫 번째 문제부터 각자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이야기해서 정리해보자. 첫 번째 문제는 시조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을 물

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

학생2: 이 문제는 선생님이 과제로 내 주신 문제 4번과도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배웠던 것에 따르자면 시는 자유시와 정형시로 구분 되잖아.

학생3: 아~ 율격이 자유롭고 어느 정도의 형식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자유시? 그렇지 않은 것은 정형시?

학생2: 응. 시와 마찬가지로 시조도 일정한 외형적인 운율과 형식이 있기 때문에 정형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종장의 맨 처음의 글자수가 거의 대부분 똑같이 지켜진다는 것을 봐도 시조가 규칙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는 장르인 것은 분명해.

학생4: 하긴, 우리가 시를 많이 배워보고 써 봤지만, 시조처럼 형식적인 제약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 쓰고 싶은 행만큼, 쓰고 싶은 글자수만큼 쓰면 되잖아.

모듬 대표: 그럼 시조는 언제 발생 된 건지, 왜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보자.

학생5: 내가 조사해 온 내용에 따르면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은 권문세족이었고, 신홍사대부가 이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무렵이라고 설명되었던 것 같아. 그리고 시조는 신홍사대부가 상층문화를 가다듬고 그들만의 지배세력을 정비할 수 있는 이념의 바탕 아래 만들어진 시가문학이고.

학생3: 맞아. 시조의 형성과 정착에 영향을 미친 계층이 사대부란 것도 시조의 안정된 형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깐 시조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기간에 잘 다듬어진 것이고, 개화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가라 할 수 있는 거지.

모듬 대표: 그래. 그럼 이제 3번과 5번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보자. 각자 조사해 온 내용을 이야기 해볼까?

학생2: 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시조의 명칭에 대한 문제인데, 고려시대에 서민층에서 즐겨 불렀던 노래를 흔히, 고려가요, 고려속요, 장가, 별곡 등으로 말하는데, 시조는 ‘단가’로 불려지다가 ‘시절가조’의 준말로 ‘시조’라는 명칭으로 불려졌대. 이 밖에도 시절가, 신조라고 다양하게 불려지기도 했다는데? 근데 왜 하필 ‘단가’라는 명칭을 썼을까? ‘시절가조’는 뭐지?

학생4: 아~ 그건 내가 본 책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장가’가 긴 노래란 의미라면, 시조는 그것에 비해 짧은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불려진 거래.

학생1: ‘시절가조’ 라는 말은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 라는 뜻이랑은? 그럼 시조는 처음에 노래로 불려졌다는 건가? 잘 모르겠네.

모듬 대표: 그건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시조 문학 장르는 발생에서부터 일정한 곡조로 노래 부르도록 되어 있는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는 5번문제의 내용과도 비슷하게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 ‘시조’ ‘시조창’의 관계...어떻게 생각해?

학생4: 시조는 처음에는 창작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당시의 유행하던 노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노래로 같이 불려졌던 것 같아.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을 때 그때의 명칭은 시조창이라고 했던 것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께 보충으로 여쭙보도록 하자.

모둠대표: 그래, 그럼 우리 지금까지 얘기해 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시조창에 관한 내용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도록 하자.

② 시조의 형식과 종류

* 학습 활동지(전문가 용지-②)

★ 이 주제는 내가 전문가! ★
☞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내가 전문가’ 가 되어 모둠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각자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새롭게 모인 전문가 집단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공통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잘 정리해 봅시다.
*토의할 주제, 내용 : 시조의 형식
1. 시조의 일반적인 기본 형식은 무엇일까요? ▶
2. 기본 형식에서 설명하는 ‘장’ ‘구’ ‘음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①장: ②구: ③음보:
3. 글자수면에서 본 시조의 형식은? 그리고 그것과 종장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
4. 시조 형식에 따른 시조 종류를 말해봅시다. ▶
5. 시조 종류에 따른 각각의 작품을 소개해 봅시다.

<2모둠 토의 활동>

모둠대표: 우리 모듬이 정리해야 될 내용은 ‘시조의 형식과 종류’에 관한 부분이야.

다들 자유롭게 조사해 온 내용을 말해보도록 하자.

학생1: 시조의 일반적인 형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3장 6구 45자 내외' 라는 논의가 일반적이야.

학생2: 맞아. 글자수는 어느 정도의 가감이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

모듬대표: 그럼, '장'과 '구' '음보'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학생3: 내가 조사해 온 바에 따르면 시조에서 '장'은 줄, 행을 의미한대. 또 '구'는 일반적으로 2개의 음보가 결합하여 한 구를 이루게 돼. 그러니깐 시조가 3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초장, 중장, 종장의 세 줄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각각 둘로 나누어질 수 있으니깐 6구가 되는 것 같아.

학생2: 근데, 음보가 뭐야?

학생3: 아~ 음보는 우리가 시조를 낭송할 때 자연스럽게 끊어 읽혀질 수 있는 호흡의 단위라고 하던데?

학생4: 응. 맞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박수를 치거나 발을 구르는 것처럼 시를 읽을 때 가락을 고려한 끊어 읽기 단위가 음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깐 음보율은 쉽게 말해 리듬이나 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로 사용되는 음보율은 3음보와 4음보가 있는데, 시조는 4음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 몸이 / 죽고 죽어 / 일백번 / 고쳐 죽어' 이런 식으로 한 행을 호흡 단위에 맞게 끊어 읽을 수 있는 거지.

모듬 대표: 앞에서 우리가 시조 형식 이야기하다가 글자수의 어느 정도 가감은 허용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허용이었는지, 그리고 종장의 형식은 특히 엄격한 정형성을 가진다고 하던데, 우리 그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보자. 이 내용은 주어진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2: 글쎄. 난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 글자수가 규칙적이라며 꼭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생3: 시조를 일정한 형식에 맞춰 쓸 때 3.4조나 4.4 조로 글자수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2자에서 5~6자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쓰여 질 수 있었대. 엄격하지만 그 가운데 나름대로의 자유로운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

학생4: 하지만 종장 첫 구의 처음 3자는 꼭 지켜져야 했잖아.

학생3: 응. 맞아. 종장 첫 음보는 3음절로 꼭 지켜줘야 하더라. 근데 왜 하필 3글자였을까?

모듬대표: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 3글자와 4글자의 느낌과 호흡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아. 4글자는 웬지 마무리 지어지는 느낌을 주는데 비해 3글자는 급격하게 닫히거나 전환되는 느낌을 주잖아. 실제로 이걸 발음해 보면 다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학생1: 그래? 글쎄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모듬대표: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왜 우리 전화번호 말할 때 443-4567 이

리는 것과 2543-9413 은 다른 느낌이 들잖아. 세 자리 국번을 말할 때에는 끝이 올라가면서 뭔가 완결된 것이 나올 듯한 느낌이 들지만, 네 자리 국번을 말할 때에는 뭔가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는 느낌이 들어.

학생3: 아~ 그럼 그런 호흡의 느낌 차이 때문에 형식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지?

모듬대표: 응. 그렇지.

학생2: 근데 왜 하필 중장이었을까?

모듬대표: 글썽.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느낌상의 차이만 생각해봤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

학생1: 그럼 우리 선생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보도록 하자.

(교사에게 질문)

모듬대표: 선생님, 저희 모듬은 종장 첫 음보가 항상 3글자로 고정되어 나타난다는 형식은 정리가 되었는데, 그게 왜 하필 종장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교사: 이 모듬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구나.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자면, 너희 모듬이 조사한 것처럼 시조는 겉으로 보기에 3장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4단의 구성 즉,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단다. 실제 시조의 예를 들어볼까? 그래, 너희조가 평시조의 예로 가져온 이 작품을 들어 설명해 보자꾸나.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하고 싶은 생각을 일으키지? 이걸 ‘기’라고 한단다. ‘백골이 진토 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이 건 어떨까?

학생3: ‘일백 번’ 죽는 것에서 ‘백골이 진토 된다’라고 그 생각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발전, 심화시키는 부분을 ‘승’이라고 하지. ‘님 향한 일편단심’의 경우에는 어떨까?

학생2: 갑자기 앞에서는 죽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깐 좀 이상한데요?

교사: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은 ‘전’ 부분으로 생각이 전환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가 ‘결’부분으로 최종적인 마무리가 되는 거지. 시조를 이렇게 의미구조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의미를 전환시키는 ‘전’의 단계가 ‘기’와 ‘승’에서 평이하게 흘러가던 리듬을 긴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학생4: 아~ 그럼 종장 첫 음보를 특히 3음보로 고정시켜주면서 보다 긴장된 느낌을 주는 거네요?

교사: 그렇지, 그 다음 음보는 5글자 정도로 글자수를 보다 많게 해주면서 안정된 느낌을 주는 거지. 때문에 종장 첫 음보의 3글자 고정은 3 글자가 지닌 느낌과 호흡, 그리고 시조의 의미전개가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지. 또 시조라는 형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앞 시대 노래들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변화되다가 완결된 형식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유가 작용한 거겠지.

학생2: 우와~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그런 것 까지 다 생각해 시조를 만들었을까요? 글자수까지 따져가면서, 그 의미도 생각해가면서...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교사: 그래, 선생님이 보충 설명해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자기 소모둠 친구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자꾸나.

모둠대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 형식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으니깐,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학생1: 응.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시조를 '평시조' 사실시조는 평시조의 기본 형식에서 가장 많이 벗어난 시조의 형식이야. 그러나 이때에도 종장 첫 구의 3자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

학생3: 난 사실시조의 작품의 예를 알아왔어. 이것을 참고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예시 작품>

발가버승(兒孩(해) | 들리/거미줄/테를 들고/개川(천)으로/往來(왕래)하며,

(초장 : 한 구가 늘어남)

발가승아/발가승아/저리 가면/죽나나라./이리 오면/사나라./부로나니/발가승로다.

(중장 : 두 구가 늘어남)

아마도/世上(세상) 일이/다 이리한가/하노라.(종장)

학생2: 그러니깐 평시조의 기본 형식에서 2구 이상이 길어진 시조를 사실시조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1수로 끝나는 시조를 단시조, 2수 이상으로 된 시조를 연시조라고 하면 되고.

학생4: 맞아. 내가 조사해 온 내용도 연시조는 한 제목 아래 평시조 두 수 이상이 연달아 나와 있는 시조를 의미하는 거였어.

모둠대표: 그래, 그럼 시조의 종류를 크게 평시조, 사실시조, 연시조로 정리하고 활동지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자.

시조의 원리와 개념, 그리고 특성 알기에 대한 이러한 전문가 학습의 경우에는 교사가 미리 제시한 학습 활동지의 안내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제를 미리 제시했다는 전제 하에, 학습자는 전문가 집단의 동료들과 토의의 과정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함께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실제 예시

활동의 과정으로 1모둠과 2모둠의 토의 과정만을 제시했고, 다른 모둠의 경우에도 비슷한 토의 활동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 다른 모둠의 경우에는 토의의 과정은 생략하고, 각각의 주제에 적합하게 제시되는 교사의 학습 활동지(전문가 용지)만을 그 예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토의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정리할 수 있는 예상 답안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③ 시조의 작자층

* 학습 활동지(전문가 용지-③)

★ 이 주제는 내가 전문가! ★
<p>☞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내가 전문가’가 되어 모둠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각자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새롭게 모인 전문가 집단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해보고, 공통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잘 정리해 봅시다.</p>
<p>*토의할 주제, 내용 : 시조의 작자층</p>
<p>1. 시조가 처음 발생했을 때의 작자층은?</p> <p>▶ 초기 시조의 형성과 정착, 성장에 주역을 담당한 인물들은 사대부(士大夫)였다. 그들은 고려 말 지배계층이었던 권문세족에 반해 새로운 정치적, 문화적 장르를 창출 할 수 있었다. 신흥사대부들이 상층문화를 가다듬고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이념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서 모방되고 반복되고 모색되면서 생겨난 형식이 시조라고 할 수 있다.</p>
<p>2. 조선 전기 시조를 향유했던 계층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p> <p>▶ 시조는 원래 사대부의 전유물이었으며, 조선 전기의 시조들은 양반들이 풍류를 즐기거나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당대의 기생들은 사대부들을 상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p>
<p>3. 조선 후기 시조를 향유했던 계층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p> <p>▶ 시조는 처음에는 사대부라는 매우 한정된 창작층만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서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서민층에서도 활발한 창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조 말기에는 서민층에서도 시조 전담 가객인 김천택, 김수장, 박효관, 안민영</p>

등이 배출되고, 평시조의 형식이 파괴되면서 새로운 형식인 사설시조가 등장하게 된다. 이들 전문 가객들은 가객 활동을 하면서도 시조 창작에도 힘썼다.

4. 작자 미상의 작품이 많이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작자 미상의 작품이 많이 전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작자 층이 서민층이었으므로 구전형식으로 향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양반층이었을 경우 그 내용이 교훈적인 사대부의 정서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작품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익명으로 창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④시조의 내용

*** 학습 활동지(전문가 용지-④)**

★ 이 주제는 내가 전문가! ★
<p>☞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내가 전문가’가 되어 모두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각자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새롭게 모인 전문가 집단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해보고, 공통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잘 정리해 봅시다.</p>
<p>*토의할 주제, 내용 : 시조의 내용</p>
<p>1. 조선 초기 시조의 내용은 어떤 경향을 띠고 있었을까?</p> <p>▶시조의 완성된 형태는 고려 말에 등장하였으나, 조선 시대의 새로운 지도 이념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 전기에 더욱 융성한 때를 맞이한다. 조선 초기에는 「절의가」, 「회고가」 등 충의를 주제로 한 것이 많았고, 점차 확대되어 애정과 도학의 세계를 노래하기도 한다. 조선 전기 시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강호가도이다. 유학자들의 시조가 자연이라는 소재를 빌어 유교적인 이념을 표현한 데 비하여, 기녀들의 시조는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정서를 아름답게 표현해 내었다.</p>
<p>2. 조선 시대 시조의 대표적인 작가를 소개해 보시오.</p> <p>▶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시조 시인으로는 맹사성, 이현보, 이황, 이이, 송순, 정철 등이 있다. 이들 유학자들은 자연을 제재로 유교 이념을 표현하는 강호가도의 자연 문학을 형성하였다. 조선 후기의 시조 작가로는 황진이, 홍량 등을 대표적인 기녀 작가로 들 수 있다.</p>

3. 조선 후기 시조의 내용은 어떤 경향을 띠고 있었을까?

▶ 조선 후기에는 사실시조가 등장하여 평민들은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표현한다. 하층 지배층들이 지은 사실시조는 남녀간의 현실적인 애정에 관한 문제, 시집살이의 애환, 상행위나 농사일 등에서 겪는 고충이나 모순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애환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길게 노래하는 시조와 짧게 노래하는 시조를 상층 사대부들이 함께 즐겼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두 형식의 노래를 어떤 상황에서 각각 불렀을지 생각해 보자.

▶ 길게 노래하는 사실시조와 짧게 노래하는 평시조를 상층의 사대부들이 함께 짓고 즐겼다고 가정한다면, 사실시조는 그 노래의 성격상 주로 유희적이고 향락적인 공간에서 불렀을 것이고, 평시조는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불려졌을 것이다. 즉, 사실시조에 속하는 대부분의 작품들이 남녀간의 애정을 소재로 하여 다소 직설적인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시조는 분위기가 들떠 있고 흥취거리는 놀이의 공간에서 양반 사대부들이 즐겼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평시조는 주로 충효, 안빈낙도, 자연에의 귀의와 같은 근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놀이 공간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경건한 분위기에서 불려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5. 고시조와 현대시조의 내용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 고시조가 주로 충, 효, 열과 같은 유교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대시조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현대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상과 감정을 드러낸다.

⑤시조집의 편찬과 가단의 형성

*** 학습 활동지(전문가 용지-⑤)**

★ 이 주제는 내가 전문가! ★
☞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내가 전문가'가 되어 모둠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각자 조사한 내용을 참고로 새롭게 모인 전문가 집단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 해보고, 공통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잘 정리해 봅시다.
*토의할 주제, 내용 : 시조집의 편찬과 가단의 형성
<p>1. 시조와 가객의 관계는 무엇일까?</p> <p>▶시조의 주된 향유층은 사대부들이었으나 점차 중인층에 속하는 인물들이 시조의 창작과 향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들을 가객이라 부른다. 이들은 중인 보다 낮은 서리(胥吏) 정도의 신분인데, 이들에 의해 시조가 창곡으로 바뀌게 된다. 이들은 가단을 형성하여 시조를</p>

창작하고 불렀으며, 시조집을 편찬하여 조선 후기의 시조 부흥에 기여한 바 크다.
 가객은 대부분 직접 노래를 부를 줄 아는 가수이면서 때로는 창작도 하는 작곡가이자
 작사가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가수 겸 작곡가의 의미와도 비슷하다.

2. 가단이란 무엇일까?

▶ 조선 후기 가객집단들은 가단(歌壇)이라는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 시조의 발전 계기를 마련한
 다. 전문적인 가객집단에 속한 가객들은 시조 창법을 개발하고, 시조집을 편찬하면서 시조창의
 발전과 대중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시조집 편찬은 시조 가객들이 가단 활동을 통해 거둔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3. 대표적인 가단의 종류를 조사해보자.

- 경정산 가단: 김천택을 중심으로 김수장 등이 참여한 가단.
- 노가재 가단: 김수장이 만년에 조직한 가단으로서, 시가의 연구와 기법을 연마하였음.
- 승평계: 박효관과 안민영을 중심으로 한 가단.

4. 주요 시가집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청구영언, 해동가요, 가곡원류, 고급가곡, 병와가곡집

전문가 집단에서 공동사고와 토의의 과정을 거쳐 조사한 자료의 내용을 정리했다면,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여 모집단에서 해결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내용의 정리가 끝나면, 각각의 소집단 모둠원들은 자신이 원래 속해있던 모집단으로 돌아가 전문가 집단에서 해결한 자기가 맡은 소주제별 주요한 학습 내용을 전달한다. 다른 소집단원들은 친구들이 학습한 내용을 같이 정리해가며, 다음과 같은 모집단 학습지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 모집단 학습지

()학년 ()반 이름 ()	내가 속한 모둠조는요.()조
학 습 내 용	시조의 원리와 특성을 알 수 있다.
1. 시조의 개념과 발생	

<p>2. 시조의 형식과 종류</p> <p>①시조의 형식 -</p> <p>②시조의 종류 -</p>
<p>3. 시조의 작자총과 내용</p> <p>①시조의 작자총 -</p> <p>②시조의 내용 -</p>
<p>4. 시조집의 편찬과 가단의 형성</p>

이 과정에서 교사는 소집단의 학습 형태를 단순 조사 활동에서 토의 활동으로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하며, 전문가가 학습 결과(먼저 공부한 내용)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토의가 끝난 후 토의 정리 활동은 토의 과정을 발표하게 하느냐, 각자 정리하게 하느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협력된 토의의 결과를 발표 한 후, 교사의 내용 정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교사가 전달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은 교사가 제시하는 보충자료를 활용하여 함께 확인하는 방법으로 지도해야 한다. 여기에서 전제되어야 할 점은 교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학습자들에게 전달해야만 하는 지에 대한 문제이다. 시조의 원리와 특징적 측면에 관한 논의, 즉 형식에 대한 분류나 명칭 등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문학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복잡

한 논의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시조의 수용과 감상을 통한 문학 능력 신장이라는 문학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교사는 학계의 여러 논의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의 보충 자료 내용

▶참고자료1. 시조의 역사

시조는 우리 겨레의 고유한 시가로서 우리 민족의 얼을 담은 전통 노래이다. 고려 말엽부터 발달한 우리 나라 고유한 창의적 정형시의 한 형태로서 신라의 향가에서 시작되어 고려 가요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조는 조선초기와 중기까지는 단가라고 하게 되었고, 중기 이후에는 창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속중에 와서 비로소 시조창이라고 하게 되고 평민에게까지 퍼지게 되었다.

▶참고자료2. 시조의 종류²⁹⁾

분류 방법	시 조 의 종 류
형식으로 볼 때	① 평(단)시조 ③장형시조(사설시조) ③ 연시조
시기로 볼 때	① 현대시조 ② 고시조

- 평(단)시조 :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5자 내외로 된 것
- 장형시조(장시조) : 51자 이상의 초장, 중장, 종장이 무제한 길어진 것
- 연시조 : 하나의 제목 아래 두 수 이상의 평시조나 사설 시조가 연결된 것

보통 시조라고 하면 평(단)시조를 호칭하게 되는데, 단시조(短時調)는 신라의 향가(鄉歌)나 고려의 별곡(別曲) 등의 영향을 받아 고려 말엽에 그 형태가 확립된다. 평시조는 크게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각 구는 7자 중심이며 종장 제 1구만이 3글자로 고정되어 있다. 음수율은 3.4조 또는 4.4 조가 많이 쓰이지만 한 두 음절의 가감(加減)은 무방하다. 다만 종장(終章)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고, 종장의 둘째 음보는 5음절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형을 따른 것을 평시조 혹은 단형시조(短型時調)라 한다. 고시조 가운데

데에는 평시조 작품이 가장 많고, 대부분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고려말과 조선초에 정제된 형식을 갖추게 된다. 장형시조(長型時調), 는 평시조(平時調)나 옛시조(謔時調)에 비해 자수상의 제약을 벗어난 형식의 시조로 평시조의 규격에서 종장 첫 구를 제외하고 두 장이 평시조보다 길어진 형태로서, 영. 정조 시대 이후 평민층에서 발생한 풍자적, 해학적 성격의 시조를 말한다.

참고자료3. 시조의 내용

시조의 완성된 형태는 고려 말에 등장하였으나, 조선 시대의 새로운 지도 이념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조선 전기에 더욱 융성한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말 선초 고려의 유신(遺臣)들이 지은 「회고가(懷古歌)」, 「절의가(絶義歌)」 등 충의(忠義)를 주제로 한 것이 많았고,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어 애정과 도학의 세계를 노래하게 되었다. 또한 시조에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삶을 노래한 작품들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 역시 순수한 자연을 노래한 것이라기보다는 유교적 충의 사상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유학자들의 시조가 자연이라는 소재를 빌어 유교적인 이념을 표현한 데 비하여, 기녀(妓女)들의 시조는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정서를 정교하고 아름답게 표현하여 또 다른 작품 세계를 형성화한다. 조선 후기의 시조 중에는 순수한 감정을 노래하였을 뿐 유교적 이념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작품들도 있다.

참고자료4. 고시조와 현대 시조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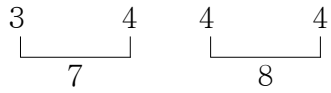
항목	고시조	현대 시조
배열방법	장별 배행	장별 배행, 구별 배행, 음보별 행같이
제목	대부분 제목이 없는 경우가 많음	제목이 있으며 연시조의 형태가 많음
내용	유교적 내용이 많음	내용이 다양함
작가	작가 계층이 다양함	전문적 작가가 창작함

참고 자료 4 : 고시조와 현대시조의 짜임과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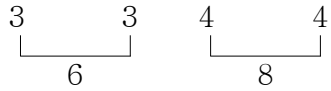
시조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로서 그 짜임이 일정한 규칙에 따르고 있다. 옛시조와 현대시조 1 편씩을 들어 그 짜임을 살펴보자.

①고시조 : 남구만(1629 - 1711)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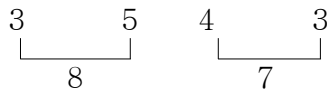
초장 :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중장 :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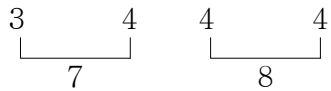


종장 : 재 너머 사래 긴 발을 언제 갈려 하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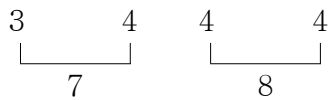


②현대시조 : 정완영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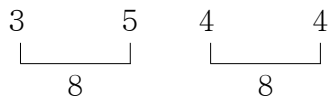
초장 : 산골짜 외딴집에 복숭아꽃 혼자 핀다.



중장 : 사립문 열어 놓고 물소리도 열어 놓고



종장 : 사람은 집 다 비운 채 복숭아꽃 혼자 핀다.



이 두 편의 글자 놓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기본율 - 3.4조와 4.4조
- ㉡ 3장 6구 - 초장, 중장, 종장이 각각 2구로 되어 전체가 6구로 됨
- ㉢ 전체짜임

장/구	제1구	제2구
초장	3(2. 4) 3(5. 6)	4 (2. 4) 4 (5. 6)
중장	3(2. 4) 3(5. 6)	4 (2. 4) 4 (5. 6)
종장	3. 5 (6. 7)	4. 3 (4)

() 속의 숫자는 변형될 수 있는 글자 수를 나타냄

참고자료 5. 심화학습 내용

*** 노래로서의 시조**

시조라는 명칭은 ‘시절가조(時節歌調)’에서 나온 것으로 ‘시절가’란 ‘이 시절의 노래’라는 뜻이 들어 있는 말이며 여기에 곡조를 뜻하는 ‘조(調)’가 붙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옛 가락’ 또는 ‘본디의 가락’이라는 뜻을 가진 ‘고조(古調)’에 상대되는 개념을 지닌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시조를 가리켜 ‘단가(短歌)’라고도 하는데 이는 노래의 길이가 짧은 데서 연유한 것이겠지만, 판소리의 허두가(虛頭歌)도 단가라고 부르는 까닭에 시조의 명칭으로 별반 사용하지 않는다.

시조의 명칭이 이처럼 ‘가락’ 또는 ‘노래’와 연관이 깊은 것은 시조가 본디 노래로 향유되었던 사실과 관계가 깊다. 오늘날 우리가 시조라고 부르는 것은 본디 ‘가곡(歌曲)’이라고 부르는 음악의 노랫말이었으며, 똑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시조(時調)’라는 음악으로 노래하기도 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음악적 관습이다.

- 조동일 외, 「한국 문학 강의」 참조-

*** 전문 가객과 시조창(時調唱)**

18세기 무렵부터 전문적인 가객이 등장하여 시조를 가곡의 곡조에 얹어서 불렀다. 이들은 종인보다 낮은 서리(署理)정도의 신분인데, 이들에 의해 음영(吟詠)중심이던 시조가 창곡(唱曲)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들은 가단(歌壇)을 형성하여 시조를 창작하고 부르는 한편, 시조집을 편찬하여 조선 후기의 시조 부흥에 기여한 바 크다. 널리 알려진 가단으로는 김천택, 김수장 중심의 <경정산 가단>과 박효관, 안민영 중심의 <승평계>가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가곡 창보다 빠르고 시조 종장의 끝 어절은 부르지 않는 시조창이 새로운 창법으로 등장했다. 이 새로운 창법은 전문 가객이 아니더라도 쉽게 부를 수 있어서 대중적인 창법으로 자리잡았는데, 이후 문학상의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29) 시조의 문학적 분류를 지금처럼 평시조와 엇시조, 사설시조로 나눈 사람은 가람 이병기로, 명칭 뿐 아니라 형식을 규정한 것도 처음이다. 현행 문학 교과서에서는 평시조와 사설시조라는 명칭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 문학사 기술에서 엇시조 명칭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작품을 통해서 엇시조 형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설시조’라는 명칭과 발생에 대해서도 그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문학 교육적 입장에서 평시조가 형식상 시조의 원형이라면, 사설시조는 평시조의 영향을 받은 변격 시조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시조 형식의 학습에 효과적이라 본다. 이처럼, 조 형식에 대한 분류나 명칭 등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다양하지만, 문학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시조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학습을 보다 능동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다른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미처 조사해오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하게 알았던 부분에 대한 심화 학습이 가능해진다. 또한,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즉, 기존의 시조의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인지적 영역의 학습이 교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방법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자료를 점검, 평가하는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으므로 이는 비판적 사고력 향상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효과 이외에도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갖게 되고, 다른 학습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또한, 소집단 내에서 각각의 전문가 집단을 따로 만들고, 같은 학습 내용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학습자가 함께 의견을 정리하고, 전문가 집단 내에서 합의된 내용을 각각의 소집단에 돌아가 내용을 종합하는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습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각각의 학습 내용에 전문가가 된 학습자들은 동료들을 대신하여 하나의 주제에 관해 깊이 있게 연구, 학습해야 되며, 차후에 학습한 내용을 다른 동료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다른 주제에 관해서는 다른 동료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맡은 과제에 한하여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토의 활동 과정의 하나인 전문가 학습 형태는 학습

에게 이러한 복잡한 논의들을 제시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시조의 수용과 감상을 통한 문학 능력 신장이라는 문학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여러 논의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 중심의 학습 형태로, 특히 인지적 영역에 관한 학습, 시조의 원리나 개념을 가르치는데 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의를 바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성과를 학습자 스스로 찾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시조 이해와 감상 교육 방안

1) 시조 감상 교육 방안

효과적인 감상 학습 지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시조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단계, 생활과 정서에 적합한 주제와 내용을 지닌 고시조와 현대시조 등을 다양한 학습 제재로 선정하여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사들은 시조 감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강 텍스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제시한다든지, 다른 작가의 작품이지만 동일한 소재나 기법이 나타난 작품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도 시조에 대한 감상의 폭을 넓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도 감상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현 7차 중학교 교과서 제재를 중심으로 하되,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강 텍스트를 제시하여 그 활용 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시조 감상 지도 방안은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거쳐 시조 내용 속에 담긴 내적인 체험들을 수용자인 학습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교육 현장에서 시조 감상 교육은 작품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피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감상 교육은 텍스트를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종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내면세계에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는 등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조 감상의 기본 전략 아래 본고에서는 소집단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상적 측면으로 내용이나 의미 구조를 살피는 텍스트 이해영역,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배경에 대한 고려,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관련 작품 지도로 그 지도 방안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한 작품의 감상은 이러한 각각의 영역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각각의 영역에서 제시될 수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고 실제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① 텍스트 이해 영역

시조 문학 중에서도 특히 고시조 작품은 텍스트 이해와 관련된 수업이 주로 교사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에 의해 어려운 한자어나 고어의 뜻이 제시되고 학습자는 기존의 해석을 그대로 수용해 왔다. 이는 결국 학습자로 하여금 시조 문학을 고전 문학의 한 종류로만 인식하게 만들었고, 시조 장르에 대한 거리감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소집단 활동을 통한 수업에서 텍스트 이해 영역을 적용할 때에는 먼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보충 교재나, 텍스트 이해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는 교사가

제시한 보충 교재나 활동지 등을 이용해 스스로 그 의미와 문맥을 이해한 뒤, 현대어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함축적으로 형상화된 시어에 담긴 의미를 소집단 활동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텍스트 감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소집단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 할 때, 활용 가능한 활동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시조에 나오는 한자어나 고어 조사해 보기
- 시조 작품에 제시된 구절을 현대어로 바꾸어 보기
- 각 시조에 중요한 어구나 구절을 찾아보고 어울리는 제목 붙여 보기
- 시조 작품에 함축적으로 형상화된 시어의 의미 파악해 보기
-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 그 의미와 표현 효과 알기
- 표현의 효과를 알고, 표현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심정을 추측해 보기
- 소재와 표현 면에서의 작품의 차이 알기

텍스트 이해 영역에 관련된 이러한 활동은 시조 작품의 종합적인 감상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학습 과정의 한 부분이 된다.

텍스트 이해 영역을 통해 어느 정도 세부적인 의미를 이해했다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기존의 수업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학습자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암기하는 형태로의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주제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야말로 소집단 활동을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이 된다. 텍스트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학습자는 작품의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소집단 토의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생각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다른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하나의 작품 안에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소집단 활동으로 주제 파악 영역의 수업을 진행 할 때 활용 가능한 활동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화자의 정서와, 상황 추측해보기
- 시조 작품에 나타난 상황과, 생활 모습 이야기해보기
- 한 작품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기
- 주제와 관련된 작품을 더 찾아보고, 그 내용 비교해보기
-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기
- 시조의 내용과 관련된 일상생활의 경험 말해보기
- 작품이 노래한 정경을 상상해보고, 그림으로 나타내 보기
- 시적 화자에게 편지를 써보거나, 시조로 화답시 써보기
-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알기

실제 작품을 제시하여 그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활동 학습지의 예 1



학습 활동지



- 작품을 읽고 다음 질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작품①

산촌에 눈이 오니 돌 길이 묻혔세라
시비를 열지 마라 날 찾을 이 뇌 있으리
밤중만 일편 명월이 그 벗인가 하노라³⁰⁾

작품②

논밭 갈아 김 매고 배잠방이 대넘쳐 신들매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둘러매고 무림산중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설을 베고 잘라서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 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비우고 곰방대를 툭툭 땀어 입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조율다가,

척양이 재 넘어갈 채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꼬 하더라.³¹⁾

1. 두 작품의 형식적 특징은 어떻게 다른지 말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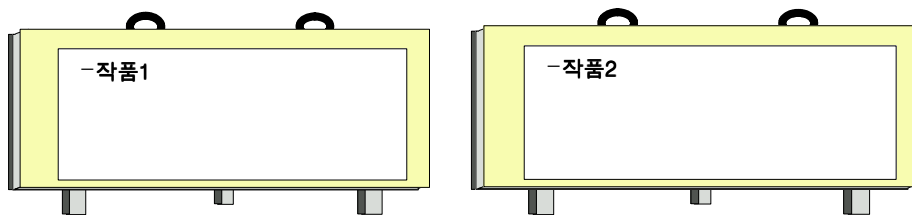
(전 시간에 학습한 시조의 원리와 특징 측면에서 모듈별로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겠죠?)

산촌에 눈이 오니	논밭 갈아 김 매고
▶	▶

2. 이해하기 힘든 생소한 낱말을 찾아 그 의미를 알아보고, 작품을 현대어로 알기 쉽게 바꾸어 봅시다.

3. 두 작품에 나타난 화자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태도는 어떻게 다른지 말해 봅시다.

4. 작품을 읽고 떠오르는 정경을 자유롭게 말해보고, 상상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5. 작품의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6. 시조의 자연관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모둠별로 이야기 해보고, 관련된 작품을 더 찾아봅시다.

(관련된 작품을 찾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서 느낀 감상을 자유롭게 말해보는 것도 좋겠지요?)

예) 월산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 송순 '십년을 경영하여' 한호 '집방석 내지 마라~' 등.

■ 과제 해결 방식의 과정

활동지1 에서 제시한 신희의 시조와 다른 한편의 사설시조는 현행 중학교 교과서 3학년 2학기 대단원 '고전문학의 감상' 과 소단원 '시조 두 편' 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단원은 시조를 감상하고 작품 속에 드러난 우리 시가 문학의 특질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평시조 사설시조 각 한 편씩을 수록함으로써 자연을 대하는 우리 민족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읽기 전 활동으로 산수화 그림을 제시,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민족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했다. 또한, 읽기 후 활동으로 두 시조의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표현해 보게 하거나, 사설시조 '논밭 갈아 김 매고' 를 순서에 따라 노래로 만들어

30) 山村에 눈이 오니 들길이 무쳐세라.

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시리.

밤중만 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흥노라. <청구영언(靑丘永言)>

31) 논 밭 갈아 기운 매고 뉘잠방이 다임 처 신들메고

낮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러매고 무림 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쉼을 뷔거니 버히거니 지계에 질머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點心) 도술 부시고 곰방대를 툭툭 떨어 뉘담배 쬐어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리 저 큰 소리 하며 어이 같고 하더라. <청구영언(靑丘永言)>

볼러 보는 형식으로 그 학습할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비교적 잘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 이외의 것을 교사는 활동 학습지나 보충 자료의 형태를 통하여 보다 심화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교사가 제시하는 문제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토의활동 과정을 전개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이미 감상활동 전 선행학습으로 시조의 원리와 특성에 대한 지식의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전제 아래, 학습자는 실제 작품을 활용하여 작품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산촌에 눈이 오니	논밭 갈아 김 매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음보, 3장 6구의 평시조 · 정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장, 중장, 종장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종장을 제외한 초장과 중장은 그 형식이 일정하지 않다.

학습자는 제시한 표의 내용과 같이 그 형식적 특징을 함께 정리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내용적 측면 따른 두 시조의 차이점도 도출해낼 수 있다. 교사는 전 시간에 학습한, 혹은 전(前)학년 과정에서 학습한 시조의 일반적인 형식을 상기시킨 다음, 두 시조의 차이점을 학생 스스로 알아보도록 할 수 있다. 형식 측면에서의 차이는 학습자 스스로 눈으로 쉽게 확인이 되므로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내용의 차이는 쉽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소집단 별로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보는 토의의 과정을 통해 텍스트를 통해 형성된 반응을 확장시킬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토의 활동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 활동이다.

모둠대표: 시조의 제목이 없으니깐 내용을 보고 그 상황을 추측해 보아야 할 것 같아.
 지금부터 자유롭게 이 내용의 분위기는 어떤지,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 이야기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우선 첫 번째 작품부터 이야기해보자.

학생1: 첫 번째 시조는 짧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 ‘시비’가 뭔지, ‘일편명월’이 뭔지... 옛날 말이라 그런가? 너무 생소했어. ‘날 찾을 이 뉘 있으리’ 라는 시어를 보고 생각한 건데, 이 시조는 외로워서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슬퍼하는 심정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

학생2: 맞아. 화자가 깊은 산속, 산촌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에도 화자가 외로운 처지에 있는 것은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학생3: 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화자가 산촌에 은거하면서 살아가는 은사라는 점에서 그의 외로운 처지를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일편명월’이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만족감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앞에서 각자 조사한 내용으로 낱말의 의미를 추측해봤을 때 ‘일편명월’은 ‘한 조각의 밝은 달’의 의미였잖아.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자연과 벗하며 고독하게 지내는 화자의 즐거움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4: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야. 산촌에 눈이 오니 뭔가 그리운데, 나를 찾아주는 사람은 없고..하지만 달이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자연과 친구하면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둠대표: 그렇다면, 두 번째 작품은 어떤 것 같아?

학생2: 음, 두 번째 작품은 웬지 서민들의 소박한 삶이 잘 나타나는 작품인 것 같아. ‘베 잠방이’를 입고 땀 흘리며 일한 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작은 샘물 옆에서 도시락도 먹고 콧노래도 흥얼거리는...

학생1: 맞아. 진짜 여유로워 보여.

학생3: 아침 일찍 논밭일 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로 일과를 보내는 농부의 삶. 일이 고되긴 하겠지만,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농부의 이런 여유로운 삶이 부러울 것 같기도 해.

학생4: 아~ 샘물 옆에서 먹는 도시락, 그 맛도 일품일 것 같이 않아? 부럽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토의 활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상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다.

산촌에 눈이 오니	논밭 갈아 김 매고
·자연 속에서 자연과 벗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아침 일찍 논밭일 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는 일로 하루를 보내는 농부의 일과를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두 시조에 대한 느낌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시조의 말하는 이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토의 과정을 통한 감상, 학습 활동지 문제 4,5,6번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보다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시조 작품을 일기 형식으로 바꾸어 보는 활동은 두 시조를 이해하고, 감상한 내용을 직접 표현해 보는 활동에 해당한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어 각각의 풀이에 비중을 두는 것이라기보다는,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학습자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라 본다.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 드러난 삶의 모습과 그 모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생 스스로 표현해 보는 활동은 학습자의 흥미를 보다 쉽게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일기 중간에 두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감상 수준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반응할 수 있는 예상 답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일기 형식으로 표현하기’ 예시 답안

* 산촌에 눈이 오니

날짜: 12월 ○일 날씨: 눈

어제부터 내리던 눈이 오전에 계속 내렸다, 날씨가 계속 춥고 눈이 계속 내리니까, 눈이 녹을 리 없고, 결국은 돌길도 묻혀 버렸다,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날에는 집 밖에 나간다는 것이 무리다, 누가 이런 날 찾아오고 찾아가겠는가? 사람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날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

그러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눈이 그쳤다,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 있다, 아무도 찾아올 리 없는 오늘 같은 날, 밤 하늘의 밝은 달이 친구같이 느껴졌다.

*** 논밭 갈아 김 매고**

날짜: 5월 ○일 날씨: 햇빛 짙짙, 바람 선선

요즈음은 논일, 밭일 등 할 일이 너무 많다. 아침부터 서둘러도 할 일은 계속 태산이다. 오늘도 아침 일찍 논밭을 갈고 잡초를 뽑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배 잠방이에 대님도 매고 신도 풀어지지 않게 들메끈으로 짝 매었다. 그러지 않으면 일할 때마다 신발이 풀어져서 말썽이니,

오늘은 무더어진 낫과 도끼를 잘 갈아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갔다. 나무를 한 집하고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먹었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콧노래까지 나왔다. 그러다가 배부르고 시원하니까 깜빡 잠이 들었다.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에, 벌써 저녁이 되어 있었다. 아이고, 할 일은 태산인데 오늘은 일을 그리 많이 하지 못했다. 이 일을 어떡하면 좋나,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내일 할 수밖에, 나무를 등에 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돌아왔더니 벌써 하루가 갔다. 내일은 더욱 열심히 일해야지.

■ 보충 그림 자료

학습 활동지 문제 4번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작품이 노래한 정경을 상상해 보고, 이를 그림으로 자유롭게 나타내 볼 수 있다. 개인별로 그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보고, 소집단 별로 작품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잘된 그림을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가 끝난 후 교사는 다음과 같은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그 감상적 측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자료1>



<자료2>



<자료3>



<자료4>

■ 활동 학습지의 예시 2.



- 작품을 읽고 다음 질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작품①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요같이 알미우라.

미운 입 오면은 꼬리를 뒤흔 치며 치뒤흔 나리뒤흔 반저서 내닫고

고운 입 오면은 뺨발을 바둥바둥 무르락 나오락 캉캉 짓는 요 도리 암캐,

원밤이 그릇그릇 날진들 너 먹일 줄이 있으라.³²⁾

작품②

뿔버들 갈해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대.

자시난 창(窓) 밖의 십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넙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³³⁾

1. 작품①을 읽고 난 느낌이 어떤지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2. 작품①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이 사람은 자기 집 개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3. 작품② 홍량의 시조에서 작가 심정을 대표하는 소재를 찾아보고, 그것의 역할을 말해 봅시다.




4. 각 시조 작품의 중요한 어구나 구절을 찾아보고,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 봅시다.

* 주의: 작품의 제목은 전반적인 작품의 분위기나, 내용을 고려하여 지어볼 것.



5. 작품② 홍랑 시조의 시적 화자 입장에서 '임'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또는, 위 두 작품에서 말하는 이의 처지와 심정을 생각해 보고, 위로의 내용을 담은 글을 써 봅시다.



○○에게 _____

- ○○로부터

6. 이 시조를 그녀가 사모하는 남자에게 들려준다면 나타날 반응을 추리해 봅시다.



7. 두 작품의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이야기 해봅시다.



8. 이 작품의 분위기와 정서가 유사한 다른 작품을 찾아보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작품1)

작품2)

32)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기궂치 알피오랴

■ 과제 해결 방식의 과정

첫 번째 제시한 작품은 지은이와 창작 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시조로서, 현행 중학교 교과서 2학년 1학기, '3. 고전문학의 감상' 단원 중 보충, 심화 부분에서 정철의 '훈민가'와 비교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다.

민중들의 자유롭고 발랄한 감정 표현, 현실에서 흔히 겪는 일상적인 사실이나 감정을 소재로 하여 참신하고도 기발하게, 조금은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미워하는 임이 오면 반가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임이 오면 방해를 놓으며 가게 만드는 알미운 개를 향해, 개 먹이가 아무리 많아도 줄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솔직하고 소박한 화자의 심정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처음 학습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이 작품만을 감상하게 한다면 학습요소와는 상관없이 장난스럽게 답변하는 경우를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이 작품 고유의 해학성과 의성어, 의태어의 감각적인 시어의 사용은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을만한 학습 제재로 활용될 수 있지만, 교사가 적절한 지도 방법과 감상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지엽적인 부분의 감상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러한 시조 제재의 경우 비슷한 정서나 내용을 가진 다른 작품과 함께 비교, 감상할 수 있게 한다면 보다 적절한 감상의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

뒤편 오며는 꼬리를 뒤흔치며 쉼짝 누리 쉼짝 반겨서 내똥고 고온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뜨르락 나으락 캉캉즈져서 도라가게 혼다

원뻘이 그릇그릇 난들 너머길 줄이 이시라 -작자미상, 청구영언, 「중학교 국어(2-1)」

33) 뒤편들 갈히 짓거 보내노라 님의손뎌,

자시는 창(窓) 맞기 십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넛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홍량, 청구영언, 「중학교 국어(3-2)」

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시조 작품 감상의 경우, ‘홍랑’의 ‘뫼벼들 갈헤 것거’를 학습 제재로 함께 활용함으로써, 적절한 감상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홍랑’ 시조의 경우 현행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고려가요 ‘가시리’와 비교, 감상할 수 있게 한 다음, 한국 문학의 특질을 살펴보는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별을 소재로 하여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고, 그 형식이 자유로워 다양한 형식에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학습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앞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지를 바탕으로 소집단별로 두 시조 작품을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 해 보게 하는 활동은 보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소집단 내 다른 모둠원들과 이야기 해보고, 다양한 의미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고전문학이 우리 생활과 유리된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공감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과 정서를 보여주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다음은 이러한 소집단 별 토의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 활동이다.

모둠대표: 우리 먼저, 이 두 작품을 읽고 떠오르는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시조부터 이야기해 볼까?

학생1: 이 시조 진짜 웃기지 않아? 웬지 모를 정겨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쓰이지 않는 의태어 표현도 많아서 매우 재미있게 느껴져. 요즘 랩 가사처럼 리듬감도 있는 것 같고....

학생2: 맞아. 나도 개의 모습이 너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

학생3: 근데, 개가 주인의 마음을 몰라줘서 주인이 개를 미워하는 건가?

학생4: 하긴 개가 주인의 마음과 반대로 행동하긴 하네. 주인이 좋아하는 손님이 오면 짖거나 하고... 그렇게 본다면 작품에 화자가 개를 원망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학생5: 나도 화자의 정서가 원망의 감정이라는 것에는 동감이야. 근데 단순히 개를 원망하는 마음에서 이 시조를 노래한 것 같지는 않아. 선생님이 학습지에 관련 내용으로 제시해주셨듯이, 이 시조는 아래 홍량의 시조와 그 정서를 비교해 가면서 읽어 보아야 할 것 같아.

모듬대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7번 문제와 관련지어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두 시조의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화자가 보이는 반응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이야기해보면 작품의 주제를 보다 확실히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들은 이와 같이 교사가 활동지에서 제시한 관련 작품과 비교하여,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에 대한 감상을 보다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으며, 소집단 내의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초기의 감상 단계를 수정하거나, 그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사는 작품의 내용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되, 학습활동지에서 제시한 관련 작품과 비교해 보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 그 정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하고 자연스럽게 단편적인 감상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게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조선 전기 기녀 시조와 조선 후기 사설시조의 말하기 방식, 작품의 특징, 정서, 어조 등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그 형식과 내용상의 특징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활동지 3번에서의 질문과 같이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소재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이 어떠한 성격과 역할을 이야기해 보는 과정은 화자의 상황과 그에 따른 정서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홍량의 시조에서 초장의 ‘뗏버들’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여성 화자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신을 기억하며 그리워해 달라는 아쉬움을 애뜻하게 드러내는 소재로 쓰이고 있다. 학생들은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그것이 함축하는 바를 추리할 수 있으며, 교사는 이러한 소재 사용의 효과가 주는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현대시조와는 다르게 고시조 작품의 대부분이 제목이 없다는 점을 고려, 시조의 주제를 파악하여 제목을 붙여 보는 활동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반영할 수 있는 활동인 동시에, 감상의 활동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활동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한 작품의 중심 의미의 이해를 넘어서서 학생들 스스로 작품의 특성과 성격을 규정해 보는 적극적 감상 활동이 된다. 교사는 작품의 제목은 그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여 설명하고, 학생들이 작품 속의 소재나 화자의 정서를 적절히 반영, 그와 관련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습활동지 6,7번 질문의 경우, 화자의 상황에 공감해 보고 그에 따른 학습자의 능동적인 반응을 유도해 볼 수 있는 활동이 된다. 작품의 상황을 적절하게 추측하여 홍량의 입장에서 ‘임’에게 편지를 써 보는 과정은 짧은 시조의 형식을 알맞은 상황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흥미롭게 작품의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으며, 말하는 이의 처지와 심정에 공감하며 두 작품 중 하나를 골라 작자에게 위로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 보는 과정은 학생들의 감상을 표현하기 활동과 관련지어 학습 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는 홍량의 시조를 감상하고 반응할 수 있는 학생들의 예상 답안을 그 예시 활동의 하나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작중 화자에게 위로 편지 쓰기’ 예시 활동

☞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떠나는 사람은 떠나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할 것 같아 더욱 안타깝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임을 미워하지 않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뿔뿔들을 보며 날 오랫동안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흔히들 떠난 사람은 빨리 잊으라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이 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을 지켜낼 자신이 있다면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다림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입을 향한 당신의 고운 마음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 이별의 아픔이 크긴 하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잖아. 슬픔을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감정을 충분히 느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앞으로 살면서 이것보다 더 슬픈 경험에 직면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너 자신을 포기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낸다면 신중하지 못한 행동 같아. 너도 아픈 감정을 경험하되, 절대로 자포자기는 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잘 극복해서 예전의 환한 웃음을 빨리 되찾길 바라.

이와 같이 학생들은 작품을 감상한 후 그 감상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볼 수 있고, 교사는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작품의 감상을 보다 심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때에는 실제로 홍랑과 최경창에 관한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그와 관련된 보충 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보충자료 - 신문기사 자료 활용

사대부와 기생의 비련 (조선일보 2000년 11월 13일)

400여년 전, 당대에 손꼽히던 사대부 문장가와 기생의 애담은 사랑 이야기가 베일을 벗었다. 조선 중기 8대 문장가 중 한 사람인 고죽 최경창과 기생 홍랑.

두 사람의 비련 스토리는 홍랑의 한글 시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만 전해져 오다가 학교재가 13일 당시 정황을 밝힌 최경창의 육필 답시, 홍랑의 시 원본, 가람 이병기의 발문 등을 공개함으로써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

"산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남에게/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밤비에 새잎 나거든 이 몸으로 여기서서"

사랑하던 연인 최경창을 서울로 떠나보내고 홍랑은 이렇게 읊었다. 1573년 가을, 함경도 경성에 북평사로 온 최경창을 만나 군막에서 거울을 함께 보낸 홍랑이었다. 이듬해 봄 서울로 부임하는 최경창을 쌍성(함경도 영흥)에서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함관령(함흥과 홍원 사이)에 이르렀을 즈음, 때마침 날도 저문데 비마져 뿌리고 있었다. 이때 지은 시를

그는 서울의 연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소식이 끊긴 채 2년 남짓. 최경창이 병을 얻어 몇달 간 누워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홍량은 그날로 상경 길에 올라 7일을 밤낮으로 걸어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나 당시는 양계의 금(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의 도성 출입을 금하는 제도)이 시행되고, 국상(명종 비 인순왕후)마저 겹친 때였다.

사람들이 이를 구실로 두 사람 사이를 혈흔은 탓에 최경창은 관직이 삭탈되고, 홍량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눈물로 홍량을 떠나보내며 최경창은 '승별'이란 제목으로 두 편의 한시(7언 절구)를 지어 주었다.

“말없이 마주 보며 유란을 주노라/오늘 하늘 끝으로 떠나고 나면 언제 돌아오라/함관령의 옛노래를 부르지 말라/지금까지도 비구름에 청산이 어둡나니”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최경창의 나이는 34세, 홍량의 나이는 알 수 없다.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 문화 백과사전」에 따르면 최경창은 홍량과의 두번째 이별 7~8년 후인 1582년 종성 부사로 또 한차례 함경도에 파견됐으나 부임과 동시에 객관에서 객사했다. 따라서 홍량과의 재회 여부는 알 길이 없다.

이지형기자 ijhyung@chosun.com

작품의 감상에 도움이 될 만한 신문 기사를 보충 자료로 활용할 경우,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추측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또한, 기사 내용 안에 실린 최경창이 홍량에게 지어준 ‘한시’ 작품을 보강 텍스트로 활용하고, 학습활동지 6번 문제와 관련 하여 최경창의 다양한 반응을 추리해보게 하다면, 제시된 작품 감상이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렇듯 작품의 내용이나 의미 구조를 살피는 텍스트 이해 영역의 감상 방법으로 소집단 모둠원들과 함께 화자의 정서와 상황을 다양하게 추측해 보거나, 한 작품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활동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감상과 수용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주로 교사에 의해 지도되어왔던 텍스트 이해와 관련된 수업을 학생의 능동적인 감상활동 방법으로 그 수업 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학생들은 사회, 문화

적 맥락 영역, 상호 텍스트적 관련 영역에 관해 학습함으로써 그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문제 해결과정은 앞에서 제시한 텍스트 이해 영역의 과정과 비슷한 토의 활동 과정을 통해 진행되므로 자세한 과제 해결방식은 생략하고, 본고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학습 활동지를 그 예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과서 이외의 작품을 활용한 경우, 작품 선정의 이유를 밝힐 것이며, 자세한 토의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반응할 수 있는 예상 답안을 적어 그 학습의 과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② 사회적, 문화적 맥락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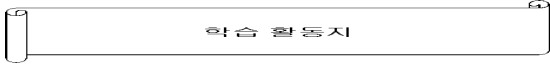
이 영역은 작품의 창작 시기와 작가 및 작품의 화자가 처한 시간, 공간 배경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지도하는 과정이다. 고시조의 경우 작가의 생애와 관련한 역사적 배경을 고찰해 보는 것은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예들 들자면, ‘작가가 이 시조를 창작한 시기는 어떤 상황이었나’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조를 만들게 되었을까’ ‘시조의 구절 속에 그러한 마음이 잘 드러난 부분은 어디일까’ 등의 활동 주제를 소집단 활동의 탐구 과정의 하나로 제시하고 토의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슷한 주제를 가진 시가와 비교, 표면적인 주제는 유사하지만, 그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다소 다른 시각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점을 학습자 스스로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소집단 활동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한 고려는 시조 작품의 장르와 주제의 다양성을 설명함에도 효과적이다. 소집단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 할 때 활용 가능한 활동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작품의 창작 동기가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 비슷한 사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 쓰여진 작품 비교해 보기
- 같은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작품 비교해 보기
-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기(형식, 내용적 측면)
- 문학 향유층에 따른 양식의 변화 말해 보기
- 사설시조와 현대 랩에 담긴 의식과 표현상의 특징을 말하고, 두 양식 출현의 문화적 배경 말해 보기

실제 작품을 제시하여 그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활동 학습지의 예시 1.



학습 활동지



- 작품을 읽고 다음 질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작품①
이고 진 저 늪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늪기도 설워라커늘 짐을조차 지실까.³⁴⁾

작품②
아버이 살아 제실 동안 섬기는 일일탕 다하여라.
돌아가신 뉘엔 아무리 애태우고 뉘우친들 어찌하리?
평생에 다시 할 수 없는 일은 부모 섬기는 일뿐인가 하노라.³⁵⁾

작품③
동기로 새 몸 되어 한 몸같이 지내다가
두 아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고

날마다 석양 문외에 한숨 저워 하노라.³⁶⁾

1. 위 시조 작품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①
- ②
- ③

2. 이 시조를 쓴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 등을 추측해 보고, 어떠한 말하기 방식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지 말해 봅시다.

3. 이러한 교훈 시가의 노래가 창작되었던 이유를 당시 시대 현실과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4. 비슷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시조 작품을 더 찾아보고,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해 봅시다.

예시작품) 주세봉 「오류가」, 박인로 「반중 조흥감이~」, 박효관 「뉘라서 가마귀들~」

5. 감상한 작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공익 광고의 형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표제(제목):	
◆전체적인 내용:	
광고 문구와 넣을 그림 설명	실천 내용

34) 어머니 사라신제 섬길 일란 다허여라/ 디나간 휘면 애롭다 엇디허리/ 평생애 고타 못홀 일이 잇뿐인가 흐노라, 송강가사(松江歌辭), 「중학교 국어(1-2)」

35) 이고 진 저 늘그니 짐 프러 나를 주오/ 나는 점엇거니 돌허라 무거울가/ 늘거도 설웨라커든 짐을조차 지실가. 송강가사(松江歌辭), 「중학교 국어(2-1)」

36) 同氣로 셋 몸 되야 혼 몸 가치 지너다가 /두 아은 어딴 가서 도라울 줄 모르논고/날마다 夕陽 門外에 한숨 계워 흐노라 - 박인로, 노계집. 「중학교 국어(1-2)」

학습활동지에서 제시한 시조 3편은 모두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으로, 교사가 적절한 활동지의 질문으로 그 수업 내용을 구성한다면 사회, 문화적 맥락 영역에 관한 학습을 위한 작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수업현장에서 이 세 작품은 단순히 작품의 주제를 알거나, 현대시조와 비교하여 시조가 가진 운율감의 특징을 학습하는 것으로만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훈민가’와 ‘오륜가’ 계열이 가진 작품의 특징과 창작 의도를 고려하여 학생들 스스로 작품의 주제와 의도를 찾아낼 수 있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당대의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작품들이 창작될 수 있었던 사회, 문화적 배경에 관한 영역을 학습할 수 있어 보다 심화된 감상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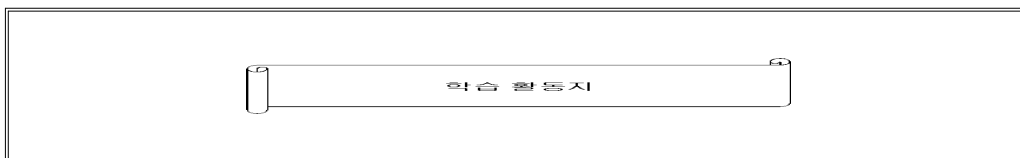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시조문학은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양식이기 때문에 유교적 덕목 등의 내용을 담은 교시적인 작품이 많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가들을 전달 위주의 주제 중심 영역에만 치우쳐 학습한다면, 관념적이고 고답적인 내용에 학습자들이 시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의 경우 단순히 교훈 학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수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교훈 시가의 노래들이 창작될 수 있었던 상황을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인 배경과 관련지어 학습할 수 있다.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이념의 대상은 유학사상(儒學思想) 이었고, 조선 시대 사대부들에게 있어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인간 생활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율이었으며 사회 기존의 바탕이 되는 것이었다. 학습활동지의 질문을 모둠원들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당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추측할 수 있으며, 작품의 내

용과 주제가 교훈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더 나아가, 작가가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 말하기 방식을 통해 작품의 표현상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과 표현상의 특징이 작품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즉, 「훈민가」나 「오륜가」의 창작의도가 유교적인 윤리관에 근거하여 백성들을 보다 나은 생활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작품의 내용 또한 일반 백성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밀접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것의 표현도 일방적인 명령조가 아니라 정감에 호소하는 어법으로 표현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활동 학습지 4,5 번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감상한 작품과 비슷한 주제와 내용을 담은 교훈 시조를 더 찾아보게 하고 그것에 대한 감상의 느낌을 ‘공익 광고문’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과정은 시조 작품을 인성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이 되리라 본다. 이러한 방법은 시조가 전달하고 있는 교훈적 내용들이 실제 생활과 유리된 고답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활동지의 안내에 따라 작품에 대한 감상을 보다 심화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사대부 시조가 가진 특유의 내용상과 형식상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활동 학습지의 예시 2 .





- 작품을 읽고 다음 질문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작품①

보리밥에 풋나물을 알맞추 먹은 후에
바위 끝이나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를 줄이 있으라.³⁷⁾

작품②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입이 온다고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³⁸⁾

작품③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여 내니,
나 한 간 달 한간에 청풍 한간 맞춰 두고,
강산은 들일 되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³⁹⁾

1. 이 세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소재를 찾아보고, 그것과 관련하여 작품에 드러난 삶의 태도를 이야기 해 봅시다.
2. 작품의 주제를 조선 전기 시가 문학의 특징과 관련하여 설명해 봅시다.
3. 사대부들에게 '강호 자연'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였을까요? 작품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해 봅시다.
4. 작품에 나타난 삶의 태도가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37)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추 먹은 후에/바윗곳 물가의 슬카지 노니노라/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를 줄 이 이시 라 -윤선도, 만흥, <고산유고(孤山遺稿)>- 「중학교 생활 국어(2-1)」

38) 잔 들고 혼자 앉아 먼 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못내 도 하 하노라. 윤선도, 만흥, <고산유고(孤山遺稿)>- 「중학교 국어(3-2)」


39) 십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지여 내니/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춰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되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송순, 청구영언, 「중학교 국어(3-2)」

두 번째 활동지에서 제시한 시조 세 작품은 모두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본고의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과서에 수록된 시조 작품의 학습 내용과 그 활동은 단편적인 이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적으로 첫 번째 작품으로 제시한 윤선도의 ‘만흥’ 중 한 수는 현행 중학교 2학년 생활 국어 교과서에서 현대어 풀이로 바꾸어 보는 활동을 통해 오늘날 사용하는 어휘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언어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교사는 이와 같은 시조 작품을 하나의 활동 학습지 아래 관련된 다른 작품과 함께 제시하여 학습의 도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강호자연 계열류의 시가를 관련 제재로 다루어 학습함으로써, 사회, 문화적 영역에 관한 학습을 돕기 위한 자료로 그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특히 사대부들에 의한 ‘강호가도류’ 시조들은 그들의 정신세계와 생활의 한 표현 또는 유교적 이념의 문학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텍스트 수용의 의의를 가진다. 보다 심화된 감상이 가능하다면, 같은 소재와 공간적 배경을 다루고 있지만,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즉, 도학이나 윤리적 차원의 조선조 유교적 세계관을 통해 자연을 인식하는 경우, 심미적 대상으로 자연을 인식하는 경우, 자연을 생활공간으로 파악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유형적 흐름을 통한 작품 감상은 당시의 시대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해하는 안목을 넓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조문학의 사적 흐름에 대한 관심 유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선인들의 전원생활의 삶을 현대인들의 삶과 비교해봄으로써 학생들은 고시조 작품 속에서 현실 생활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시조가 처음 사대부에 의해 창안, 향유되었던 장르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이념의 대상이 작품에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유교적 덕목의 실천과 교화가 주요 관심 대상이었으며, 치사(致仕)한 후에는 자연을 마음껏 즐기며 속세와 초탈한 생활을 소망하였다. 때문에 ‘이념 지향류’의 시가와 ‘인륜도덕’,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의 수용은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자연스러운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 문화적 영역과 관련한 시조 작품의 감상은 작품의 장르와 주제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교과서의 한정된 텍스트 자료로 학생들이 시대 상황에 따른 시조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은 사대부들의 단골 주제인 연주 충군, 인륜 도덕과 함께 강호에서 한가롭게 자연을 벗하며 유유자적하는 강호 생활을 노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품의 불균형적인 수록은 학습자들에게 시조 내용이나 주제에 관한 고정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 때문에 다음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사설시조 두 편을 학습 활동지 세 번째 예시 자료로 제시해봄으로써 보다 다양한 보강 텍스트 제공의 필요성을 살피고자 한다.

■ **활동 학습지의 예시 3.**



작품①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의 무서시라 왜는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후행(前行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으스스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왜지 말고 게젓이라 하렴은40)

작품②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힘 뒤에 치달려 올라앉아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 내달리니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모처럼 놀랜 널식망정 에혈질번 하쾌리41)

【도움 자료】

- 황화 : 잡화(雜貨). 팔려고 내놓은 물건
- 무서시라 : 무엇이랴
- 웨는다 : 외치느냐?
- 외골내육(外骨內肉) : ‘게’를 일컬음. 겉은 딱딱하고 속은 연한 살이 있음을 비유
- 소(小)아리 : 작은 다리. ‘아리’는 ‘다리’의 옛말
- 청장(淸醬) : 진하지 않은 맑은 간장. 뱃속에 들어 있는 푸른 빛깔의 장
- 으스스 : 게를 입에 넣고 씹을 때 나는 의성어 표현
- 초려(草廬): 초가집
- 두힘: 두엄, 거름더미, 백송골: 흰 송골매, 널식망정: 나일세망정, 나니까 망정이지, 에혈: 어혈(瘀血), 응혈(凝血), 부딪혀서 피가 맺히는 것

1. 두 시조 작품에 동원된 소재나 어휘는 조선 전기의 작품과 어떻게 다른지 말해 봅시다.

2. 이러한 시조가 많이 등장하는 데에는 어떠한 사회적 여건이 관여하였겠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시대 상황, 담당층의 변화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것)

3. ‘두꺼비’ ‘백송골’ ‘파리’가 비유하고 있는 것을 시대상과 관련하여 생각해 봅시다.

4.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전 소설 ‘토끼전’ 에 나온 인물 유형과 한번 비교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용 왕	토끼	두터비, 백송골	파리
↓	↓	↓	↓
(감자)	(약 자)	()	()
↓	↓	↓	↓

당시의 지배자

당시의 피지배자

()

()

5. 작품①에 나타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친구의 외양과 성격을 소개하는 사실시조 한 편을 써 봅시다.

6. 작품②에 반영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모둠별로 문학 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 내용에 알맞은 신문 표제를 지어보고, 모둠원 각자 한 면씩 역할 분담하여 기사의 내용을 작성해 보세요. (참고문헌과 인터넷 검색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면 출처 및 관련 사이트를 반드시 밝혀 줄 것)

학생들은 활동학습지3에서 학습 자료로 활용한 두 작품의 감상을 통해 시조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앞의 두 작품과는 그 특징이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양반 사대부들이 주로 짓고 즐기던 평시조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세계관과 사유 방식을 담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평시조는 우아미나 숭고미와 같은 고답적이고 격조 높은 양반 사대부의 미의식과 세계관에 바탕을 두어 압축되고 절제된 시 형식을 추구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하층의 서민들이 주로 짓고 즐기던 사실시조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특징은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서 드러난다. 형식 또한 풍자, 골계, 해학과 같은 서민적 미의식에 기반을 두고 삶의 애환과 갈등을 다소 장황하게 풀어내려는 산문정신의 표출이 형상화

40) 퇴폐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귀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外骨內肉 兩目이上天, 前行, 後行, 小아리 八足 大아리 二足, 淸醬 으스스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말고계짓이라 흥렴은 -작자미상, 사실시조, 병와가곡집(瓶窩歌曲集)

41) 두터비 폭리를 물고 두협 위희 치드라 안자/ 건넛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씨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쉼어 내듯다가 두협아래 잣마지거고/ 모쳐라, 늘넨 넬식망정 어혈질 변 흥쾌라. - 작자미상, 사실시조, 靑丘永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제시한 작품은 서민의 생활 감정을 담은 익살맞은 시조로, 서민적 감정이 여과 없이 표출되어 있는 해학적이고 희화적(戲畵的)인 작품이다. 게갯이란 간단하고 쉬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어려운 한문 문자로 외치고 다니는 게갯 장수를 빈정대며, 한문만을 뽐내는 양반 계층을 은근히 꼬집은 풍자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대화 형식의 재담과 익살로 엮어졌다는 점, 당대 상거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에 적합한 수준의 시조 작품이라고 본다. 두 번째 작품은 '파리'와 '두꺼비', '백송골'의 세 계층을 통해서 권력 구조의 비리를 우회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으로, 당시의 탐관오리들의 부패상을 은근히 꼬집고 있으며, 작품과 관련하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모습을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학습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여기서 파리는 힘없고 연약한 평민, 두꺼비는 양반 계층(지방 관리), 백송골은 두꺼비보다 힘이 더욱 센 외세(外勢, 중앙 고급 관리)로 파악할 수 있는데, 특권층인 두꺼비가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다가 강한 외세 앞에서 비굴해지는 사태를 익살스럽게 풍자한다. 학습자가 이러한 내용에 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고전 소설 '토끼전'의 내용을 선행 지식으로 활용하여 등장인물과 비교, 학습할 수 있게 한다면 보다 친숙한 작품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시조가 사대부의 유교적 이념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생한 장르라는 사실과 후대로 갈수록 다양한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다양한 사상과 감정을 잘 담아내는 역할을 한 장르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문학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시조 작품 주제들의 세부 항목 자체만을 제시하는 것은 무

의미하다. 그런 의미에서 감상의 또 다른 측면으로 사회적, 문화적 영역과 관련한 보다 심화된 감상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교과서 작품을 활용하되, 균형에 맞게 다양한 보강 텍스트를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전체적인 특성 속에 개별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조 이해와 감상 교육 방안의 하나로 작품이 향유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 상황 속에서 작품을 보다 열린 텍스트로 이해하여 접근한다면 문학의 교육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고어의 자구(字句)에 의존한 이념적인 내용성에서 교육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시조 문학을 생성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나 규범의 바탕 아래 보다 역동적인 것으로 이해할 때 시조가 가진 교육성이 바르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상호 텍스트적 이해의 영역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서 작품과 작품간의 비교를 통한 텍스트 상호성에 관한 이해는 보다 심화된 작품 감상 지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나의 개별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작품과의 관계를 통해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다른 장르와 비교해 보는 활동은 왕성한 사고 활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감상한 작품의 내용을 주제가 비슷한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보거나, 같은 작자의 다른 작품, 장르나 시대가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이러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의 일반적 모습은 이러한 텍스트 상호성을 활용한 감상의 심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 못하다. 특히 시조 작품의 경우 교사의 일방적인 고어 풀이와 자구적 해

석에만 초점이 주어져 있을 뿐, 다른 작품과의 관련성을 살피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한 시수 당 여러 편의 시조를 다루면서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수업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시 말해, 한 편의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텍스트 해석과 감상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배우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도 그 능력이 발현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작품과의 비교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초기의 감상 단계 수정하거나 확장,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 경험의 확장은 해당 텍스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작품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길러준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라 본다. 교사가 실제로 수업 내용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얼마나 풍부하고 적절한 텍스트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안목과 사고가 확장되는 길은 풍부하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지도 방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학습 활동지의 실제 1.

<p>작품① 나무도 바리돌도 업슨 외에 매개 쫓친 가토리 안과,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노도 일코 닻도 일코 돛대도 짓고 용총도 끈코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길은 천리만리 남은데 사면이 거머어득 저쪽 천지적막 가치노을 뗏는애 수적 만난 도사공의 안 과, 엇그제 님 여획 내 안이야 엇다가 가을하리오.42)</p> <p>작품② (전략)사람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p>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불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러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
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걸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
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
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채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中

【도움 자료1】

①바히 : 바위. 뫼해 : 산에. 쫓친 : 쫓긴. 가토리 : 까투리. 암꿩. 안 : 마음. 농총 : 뫼대
에 달린 굵은 줄.

근코 : 꿩이고. 것고 : 꺾이고. 치 : 키. 배 뒤에 달려서 방향을 잡는 기구. 자진 : 자욱
한. 거머 : 검고.

어둑 : 어둑하고. 저뫼 : 저물어. 가치노을 : 사나운 파도 뒤에 떠도는 흰 거품.

도사공 : 우두머리 사공. 여흰 : 이별한. 가을하리오 : 견주리오. 비교하리오.

②정수박이 : '정수리'의 뜻. 머리 위에 솜구멍이 있는 자리.

【도움 자료2】



1. 작품①의 화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을까요? 그 내용을 정리해 봅시
다.

☞ 예시 답안

장별	마음	구체적인 내용
초장	까투리의 마음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참담한 마음
중장	도사공의 마음	파선 직전에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절박한 마음
종장	나의 마음	임을 여윈 슬픈 화자의 심정

2. 작품①의 시조의 화자와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의 화자의 심리 상태
를 비교하여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 예시 답안

사설시조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헤어진 심정을 매우 위급한 상황에 닥친 까투리나 도사공의 경우보다 더 참담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의 화자는 매우 절망적인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님의 침묵'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이지만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희망을 가짐으로써 그 슬픔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작품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슬픔을 수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위 시조에서처럼 여러분들도 절박한 심정을 느꼈던 경험이 있나요? 자신의 생활 속 경험을 떠올려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 해 봅시다.

예시 답안

- 시험 끝나기 5분 전, 문제의 답이 생각나지 않아 속상하고 다급했던 경험
- 아침에 늦잠 자고 놀라 깨어나 바쁜 마음으로 학교로 뛰어 갔는데, 결국 눈앞에서 교문 닫히는 모습을 보게 된 경험
- 중간고사 기간, 조금만 자고 일어나 공부한다던 것이 다음날 아침이어서 시험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렀던 경험.

4. 그때의 절박한 심정을 위 작품의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설시조로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

예시답안

- 자정 무렵 생각난 수행 평가 과제에 밤샘 ○○의 마음과,
 늦잠자고 놀라 일어나 세수하려는데 물은 나오지 않고, 스타킹 신는 도중 구멍 나고, 대문 나서도 준비물 챙기지 못해 돌아오고, 버스 기다리다 지쳐 택시 탔는데 길이 막혀 결국 눈앞에서 교문 닫히는 모습을 보게 된 ◇◇의 마음과,
 도무지 정답을 모르겠는 내 마음 어디에 비교하리오.

42)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뵈헤 매게 췌친 가토리 안과

大川 바다 한가운데 一千石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닻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것고 치도 싸지고
 바람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계 즈자진 날에 갈길은 천리만리(千里萬里) 나쁜디 사면이 거머어득 저못
 천지적막(天地寂寞) 가치노을 췌논디 수적(水賊)만난 도사공의 안과
 엇그 제 님 여현 내 안히야 엇다가 ㄱ을 흐리오 - 작자미상, 청구영언

■ 학습 활동지의 실제 2

작품①

마음이 어린 후(後)니 하난 일이 다 어리다.
만중 운산(萬重雲山)에 어네 님 오리마난,
지난 님 부난 바람에 행여 권가 하노라.

작품②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나서 대문(大門)나가 지방(地方) 우회 치다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 산 바라보니 거머뿔들 서 있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것희님의 천방지방 지방천방 존 되 마른 되 갈피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앳말 하려 하고 것눈을 흘컷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흘날 갈가 벽긴 주추리 삼대 살드리도 날 속여거다.
모쳐라 밤일식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유일 번하페라.

작품③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서성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설레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 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서성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1. 작품 ①,②의 화자의 상황을 이야기 해보고 그 심정을 추측해 봅시다.

2. 두 시조 작품과 비슷한 시적 발상과 표현을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 보고, 세 작품의 시적 화자의 태도를 비교해 봅시다.

【도움 자료1】

- ①어린: 어리석은
- 만중운산: 만 겹 구름으로 덮인 깊은 산
- ②지방: 문지방
- 이수로 가액하고 : 손을 이마에 대고
- 거머뿔들 : 검은 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것비님의 님비곰비 : 거뭇거뭇
- 갈가벽긴 : 갈아 벗긴
- 주추리 : 삼대의 줄기

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활동지의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하게 한다면, 학습자들에게 보다 심화된 감상의 경험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조 감상 과정에서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업 시간의 부족, 참고 작품의 수집과 선정의 어려움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시조 감상 영역에 대한 교육이 주어진 텍스트를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교과서 이외의 시조 작품들을 자

발적으로 찾아 감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교사가 관련성 있는 작품을 활용해 감상의 느낌을 더욱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시조 문학에 대해 학습자들이 친근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감상 방안이 될 수 있다.

2) 시조 낭송 교육 방안

시조 교육 방안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시조 낭송지도는 대부분 수업의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시조는 우리의 성정에 잘 어울리는 전형적 리듬을 그대로 지녔다. 이러한 시조의 음악성을 직접 체득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여 시적 감동을 심화, 확장시키고 언어와 정서를 순화시키는 낭송 학습은 그 교육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 수업 현장에서 시조 낭송에 대한 지도는 간과하고 있지만, 시조 낭송은 시조 감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학생들이 시조를 제대로 음미하면서 낭송하는 경험을 갖는 것은 작품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은 물론 내면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본고에서는 시조 낭송 지도를 위한 교수, 학습 방안으로 시조의 음악성을 살린 읽기와 낭송을 통해 먼저 시조의 운율감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한 후, 노래로서 불려질 수 있었던 시조창과 시조 문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조 문학이 가진 독특한 형식과 운율 감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시조라는 것이 본래 노래로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시조와 시조창의 관계에 대한 심화된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① 시조 읽기와 낭송 지도 방법

시조의 특징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음악적 형식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조는 본디 그 연원에서부터 ‘창(唱)’ 문학이라고 할 정도로 음악과 가깝고, 음악성이 풍부한 장르이다. 그리고 이 음악성은 주로 4,4 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운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시조가 지닌 이러한 음수율과 음보율에 관한 특성을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낭송의 방법을 구안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낭송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4음보 운율이 주는 안정감을 바탕으로 시조의 정형률을 익힐 수 있으며, 우리 전통 시가에 대한 고유의 미감을 느낄 수 있다.

시조 감상 학습 초기와 감상 후에는 시조의 개념과 형식, 내용을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조 속에 들어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유추해 내고 음악성을 살린 읽기와 낭송을 통해 형식과 운율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작정 학생들에게 시조를 낭송하라고 한다면, 시조창을 접해보지 못한 학생, 시조 고유의 운율과 형식에 관한 내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에게 무리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시조를 낭송하게 할 때에는 즉흥적인 방법보다는 교사의 모범 낭송이나 낭송 전문가의 낭송을 따라 읽게 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낭송 지도에 앞서 운율의 특성과 시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 한 후에 모범적으로 낭송하고 학생들이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때, 교사와 학생들 간에 임의로 낭송 기호를 정하고 낭송할 시조에 표시를 함께 해본 후, 시조의 특유한 운율과 리듬감을 느끼며 낭송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학습 자료로 신호를 줄 수 있을 만한

리듬자료를 활용하여 지도하는 것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임의의 낭송 기호를 정하게 한 다음, 시조에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정한 낭송 기호를 표기하게 하고 낭송하게 한다. 감싼 쉬는 곳(∨), 길게 쉬는 곳(▲), 강조하며 읽으며 길게 발음 할 곳(◎), 감정을 살려 점점 소리 높여 낭송할 곳(↑), 분위기를 조성하고 천천히 뜻을 음미하며 낭송 할 곳(....) 등을 표시 한 후 낭송하도록 하면 시조의 느낌을 잘 살려 낭송할 수 있다. 감상한 시조 장면을 머리 속에 떠올리며, 낭송할 시조에 낭송 기호를 표시해 보는 활동은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법을 소집단별로 모여 함께 의논하게 하고, 낭송해 보게 하는 과정은 학습자 스스로 작품의 분위기에 맞게 다양한 낭송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다른 소집단으로부터의 평가, 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다.

낭송 지도 자료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낭송할 시조 제재를 별도로 선정하는 것도 무관하나, 감상 학습에서 다루었던 시조 작품들 중에서 낭송하기에 적절한 시조를 선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p>동기로★ 세 몸 되어★ 한 몸 같이★ 지내다가★ 두 아운☆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고☆ 날마다★☆ 석양 문외에★☆한숨 겨워★☆하노라★☆⁴³⁾ - 박인로 '오륜가' -</p> <p>비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만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누님께로★☆보내자 ★☆</p> <p>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 집을☆ 그리시고☆</p>	<p>★캐스터네츠 ☆탬버린(트라이앵글)</p>
---	--

손톱에★☆☆ 꽃물 들이던 ★☆☆ 그 날 생각★☆☆ 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매어 주던 ★

하얀 손☆☆가락 가락이☆☆ 연붉은☆☆그 손톱을 ☆

지금은★☆☆ 꿈 속에 본 듯★☆☆ 힘줄만이★☆☆ 서노라⁴⁴⁾

- 김상옥 '봉선화' -

이 두 작품은 실제로 현행 중학교 1학년 2학기, '4.시의 세계' 단원 에 시조 감상하기 전 활동으로 시조 특유의 운율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수록된 작품이며, 학생들이 4음보의 규칙적인 운율을 느끼면서 시조를 낭송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시조를 무작정 읽어보라고 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학생들 스스로 고시조에서부터 현대시조로까지 이어지는 시조 특유의 운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소집단별로 운율 단위를 끊어 보게 한 후, 현대시조의 운율과 비교해보고, 직접 리듬자료를 활용해 낭송해 보게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낭송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을 적절히 통제하여 지나치게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리듬 자료를 통한 낭송 방법을 통해 시조 특유의 운율감을 익혔다면, 소집단별로 낭송 연습을 통해 자신의 낭송법이 시의 분위기에 맞는지 서로 들어주며 고치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시조 작품의 내용과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선택하여 낭송의 과정 중에 활용하게 한다면, 작품의 정서와 분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집단별로 시조 낭송 테이프를 만들어 발표해 보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시조 낭송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한 과정을 돕기 위해 교사는 적절한 활동지를 제시하여 그 방향을 안내할 수 있다. 또한 가능한 낭송은 모둠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43)중학교 교과서 1-2, 4. 시의 세계, 단원의 길잡이에 수록.

44)중학교 교과서, 1-2, 김상옥, 봉선화. 본시 학습 제재로 수록.

하고, 돌아가며 그 낭송의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게 한다. 활용할 수 있는 활동 학습지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시조 낭송 테이프 만들기 학습 활동지

◆모둠별 시조 낭송 테이프 만들기◆	
내가 속한 모듬조: ()조	모듬원:
선정한 시조 작품:	낭송자:
준비물:	
역할 분담 및 내용: 1) 2) 3) 4) 5)	
제작 일정:	
작품별 배경 음악 소개: (음악 선정 이유를 분명히 밝혀줄 것)	
토의 및 제작 과정:	
자체 평가 및 개별 소감:	

학습자들은 교사가 제시한 활동지 형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시조 낭송에 참

여한 토의와 활동의 과정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수업 방안은 실질적으로 한정된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적당한 시간을 두고 수행 평가 형식의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②시조창 지도 방법

고전 시가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시조 역시 음악과의 관련성을 간과할 수 없다. 시조는 창(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래로 불려졌던 것이지 문학으로서만 읽혀졌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시조는 문학 장르로서의 시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음악적으로는 가곡창 혹은 시조창이라는 곡조를 의미한다. 시조는 이렇듯 음악과 문학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연계 지도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시조 감상 측면에 대한 학습이 주로 시조를 문학 제재로서 활용한 것이었다면, 여기에서의 시조창 지도 방법은 시조 장르의 문학적 특징과 음악적 특징을 함께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이 문학 제재로서의 시조의 효용성을 다루고, 그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때문에 시조창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은 그 전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⁴⁵⁾

시조는 눈으로 보고 소리 내어 읽는 문학이 아니라 노래하는 문학 양식이다. 한시가 읊조리는 방식으로만 향유할 수 있었다면, 노래로서 향유할 수 있었던 시조 양식은 독특한 장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시조들은 우리가 흔히 사설시조와 평시조로 부르는 것들인데, 길게 노래하는 시조와 짧게



45)실제로 음악적 양식으로서의 시조창 지도 방법은 보다 심화된 학습 내용을 가지고도 지도 가능하지만, 본고에서는 보다 시조 작품을 보다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적 측면으로만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시조 문학 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피고자 한다.

노래하는 시조는 노래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면 사설시조는 많은 말들을 정해진 시간 혹은 악보 내에 불렀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두 가지 형식의 시조를 보더라도, 화자의 심정을 표출하는 방식과 시조에서 다루는 대상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많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짧은 형식으로 절제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긴 형식으로 다소 장황하게 화자의 심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각각 존재했을 것이고, 때문에 시조와 시조창의 관계를 통한 학습으로 그 차이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은 노래하는 대상과 표현 방식, 그리고 누가 어느 상황에서 불렀겠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하면서 작품에 접근할 수 있다. 실제로 감상의 과정에서 학습했던 시조 작품을 직접 시조창으로 들어보는 활동도 효과적이며, 학생들은 읽는 문학으로서만 시조를 감상할 때와는 다른 분위기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사전에 시조창 테이프와 녹음기를 미리 준비하여 학습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피하게 매체를 활용할 수 없는 교실 상황의 경우에는 미리 학생들에게 시조창을 들어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⁴⁶⁾를 도움 자료로 제공하여, 시조창을 듣고 그 감상을 적어오는 활동을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랩이나 힙합과 같은 현대 음악 장르에 익숙한 학생들이 시조창을 듣는 것을 지루해하거나 선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조의 음악적 특징과 시조창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지를 통해 시조와 시조창과 관계를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음악과 문학으로서의 시조의 특징을 알고, 실제로 배운 시조를 자신이 즐겨 부르는 노래에 담아 부르는 과정을 통해 보다 흥미 있게 학습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수업 과

46) <http://www.jungga.co.kr/> http://www.sori.jeonbuk.kr/sori_2/001.html
http://www.sori.jeonbuk.kr/sori_2/001.html

정 중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활동지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p>※ 시조창을 들어 보고, 다음의 활동을 해 봅시다.</p> <p style="text-align: right;">- 인터넷 도움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http://www.sori.jeonbuk.kr/sori_2/001.html http://www.jungga.co.kr/htmlhttp://www.sori.jeonbuk.kr/sori_2/001.html</p>
<p>1. 작품을 노래로 듣는 것과 눈으로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p> <p>☞ 예시 답안: 시가 노래라는 점을 참고하면 눈으로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운율과 창으로 들을 때의 운율은 확실히 다르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시조 낭송은 읽기지만 시조창은 노래이기 때문이다. 시조를 노래로 들으면 운율을 보다 분명히 느낄 수 있으며, 가사의 의미와 그에 대한 느낌이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시를 눈으로 읽으면 금방 잊혀지는 경우가 많은데, 좀 지루하긴 했어도 노래로 불러지던 시조의 느낌을 보다 더 잘 느낄 수 있었다.</p>
<p>2. 평시조와 사설시조는 창으로 들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p> <p>☞ 예시답안: 평시조가 느리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사설시조는 그것에 비해서 나름대로 빠르고 경쾌한 느낌이 들었다. 평시조든 사설시조든 정해진 시간 혹은 악보 내에 가사를 노래해야 하는 것은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설시조는 평시조와는 다르게 가사의 글자수가 많아서 좀 더 빠르게 불러졌을 것 같다.</p>
<p>3. 앞에서 배웠던 시조 작품 중 하나를 정해 노래로 만들어 불러봅시다.</p> <p>☞ 사설시조 '논밭 갈아 김 매고'를 노래에 담아 부르기 적절하게 변형한다.</p>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으로 즐길 때의 시조와 음악으로서 향유될 때의 시조 양식의 차이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형식과 그에 따른 내용상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감상했던 시조 작품 중

하나를 정해 노래로 만들어 불러보는 과정은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도 도움이 되는 학습 방법이다. 실제로 사설시조의 경우 재미있는 내용과 언어적 특징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아하는 노래나 랩 리듬에 가사를 담아 부르는 활동은 감상의 심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 과정은 먼저, 현대 대중가요 가운데 시조에 적합한 노래를 찾아서 시조의 내용을 곡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도록 하고, 준비가 끝나면 곡에 맞추어 소집단별로 노래를 불러보게 한다. 학생 개인이 이 활동을 할 경우 학습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모둠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시답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시조 작품 정하기

논발 갈아 김 매고 베잠방이 대넘쳐 신들매고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둘러메고 무림산중 들어가서 삭정이 마른 쉼을 베고
 잘라서 지게에 짊어 지팡이 받쳐 놓고 샘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 비우고 곰방대를 툭툭 떨어 잎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조율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⁴⁷⁾

■ 시조에 어울리는 곡 정하기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모두의 축제 서로 편 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같이 빙글 빙글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함성이 터져 메아리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커져 아름다운 젊음이 갈라져 있던 땅덩어리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사나인데 가슴 짝 펴고 화끈하게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것 보소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네가 (챔피언) 네가
(챔피언)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 노래가락에 알맞게 시조 내용 수정하기

<진정 열심히 사는 농부가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논 갈아 김 매고 벼잠뱅이 대님 신들매고
낮 갈아 차고 도끼 갈아 둘러매고
무림산중 가서 강상 수월래 강강 수월래
삭정이 베고 마른 쉼 잘라 지게 짊어 지팡이 받쳐 놓고
쌈을 찾아 맛있게 먹는 주먹밥
둥글게 둥글게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곰방대 툫툫 앞담배 물고 콧노래 흥얼 꼴꼴
석양이 넘어 갈 제 노래를 하면서
어이 같꼬 어이 같꼬 어이 같꼬

(챔피언) 김 매는 네가 (챔피언) 나무 하는 네가
(챔피언) 열심히 일하는 네가 (챔피언) 네가 (챔피언) 네가
(챔피언) 김 매는 네가 (챔피언) 나무 하는 네가
(챔피언) 열심히 일하는 네가 챔피언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시조창 지도에 관한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지만, 시조창과 관련한 교수, 학습은 시조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을 체득하여 시문학의 운율에 관한 교육과정상의 지도 내용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조창 지도가 쉽고 재미있게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얼마든지 의욕적으로 감상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현대시나 대

47) 논 밭 갈아 기음 매고 벼잠뱅이 다임 쳐 신들매고

낮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러매고 무림 산중(茂林山中)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쉼을 뷔거니 버히거니 지게에 짊머 지팡이 받쳐 놓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點心) 도습 부시고 곰방대를 툫툫 떨어 뉘담배 꺾어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리 저른 소리 하며 어이 같고 하더라. <청구영언(靑丘永言)>, 「중학교 국어(3-2)」

중가요를 시조창 가락으로 읊어보게 하는 활동들도 시조창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조의 영창 활동은 전문적인 기능인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감각, 우리 가락으로 시조를 이해하고 감상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부분까지 심화하여 지도하는 것보다 시조창을 통해 우리의 가락을 음미하게 하고, 시조의 음악적 속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시조 창작 교육 방안

문학 교육의 활동 영역 가운데 감상 교육이 수용 방안의 하나라면, 표현 활동으로서 ‘쓰기 교육’은 수용활동의 또 다른 측면으로 감상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지도될 수 있다. 창작 교육은 작품 읽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인 문학 교육을 지양하고, 작품의 수용을 바탕으로 자기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될 수 있다. 시조 교육에 있어서도 감상단계에서 수용된 학생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시조 창작의 과정으로 연결한다면 감상과 쓰기라는 과정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수업 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시조는 현대시와는 달리 특유의 운율과 형식, 짜임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념과 형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 과정을 거쳤다면, 특유의 운율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지도 방법으로 시조를 자연스럽게 창작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시조의 효율적 감상도 중요하지만, 보다 통합적인 시조 교육을 위해서는 읊고 외는 감상뿐 아니라, 실제로 시조를 지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근래에 시조 교육에서도 창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들이 많이 제기⁴⁸⁾되고

48) 김덕현, 「시조문학 교육론」, 『한국시조 작가론』, 국학 자료원, 1999.

김명숙, 「감상과 짓기의 연계를 통한 시조 교육 방법」, 서울 교대, 1999.

있는데, 이는 시조 창작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시조의 창작은 문학교육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 능력 신장에도 유용한 교육적 활동들을 제공한다. 시조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언어 구조와 문학적 장치를 학습, 표현하게 한다면 문학적인 언어 감수성을 높이면서도 언어 사용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다.⁴⁹⁾

그러나 창작 교육 방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창작을 지도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음수율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지도 방안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조 창작을 할 때, 단순히 글자 수만 맞으면 시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시조의 구조적 특질에 따라 그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시조의 교육적 성격을 고려한 창작 교육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시조를 창작하는 과정은 낭송과 감상을 통해 이끌어진 학습자 자신의 체험을 형상화시켜보는 단계이다. 때문에, 처음부터 창작을 요구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시조 작품을 모방해 보거나 중요 문구를 바꾸어보는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교사는 시조의 형식원리와 현대의 창작원리가 조

김선배, 「시조 창작 교육의 실태와 방법 탐색」, 『한국시조 작가론』, 국학 자료원, 1999.

이광용, 「시조 짓기 지도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 1998.

시조 창작 교육을 시도한 논의들은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광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조 창작 지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시조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시조 창작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 쓰기 지도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김명숙의 경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상과 짓기의 연계를 통한 시조 교육 방법을 탐색하였다. 특히 노산 이은상의 시조를 분석하여, 시조의 전형적인 전개 방식인 동의적 전개 방식과 대립적 전개 방식, 대화체 등을 시조 짓기 수업에 적용하여 모형을 제시한 점에서 주목된다. 김선배는 시조 창작 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창작 교육 방법을 탐색하여, 실제 창작 단원의 설계를 시도하였다.

시조의 창작 교육에 관한 논의들은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러한 창작교육을 시도한 대부분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조 창작 지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49) 김선배, 「시조문학 교육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1998. p55.

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⁵⁰⁾ 학생들의 작품을 많이 제시해 주고 패러디한 작품도 보여줌으로써 시조 쓰기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창작 과정을 통한 최종 단계의 작품은 적절한 시기를 두고 과제로 제시하여 수행평가에 반영하여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적절한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사실 교과서에 제시된 문학 제재를 한번이라도 다 감상해보고자 한다면 제시된 시조 작품을 감상한 후에 창작의 과정에까지 이르는 단계는 교실 현장의 시간적 여건을 고려해보더라도 쉽지 않다.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별도로 시조 창작 지도의 계획을 세우고 지도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법으로는 쉽지 않다. 때문에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활동 방안들도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지향하는 과정이지만, 전문적인 수준에서의 창작이 아니라 자기표현의 한 방법인 습작 과정을 통해 시조 특유의 형식적 특질을 알게 하고, 보다 적극적인 감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① 시조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창작 방법

일반적으로 시조 창작이라 하면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에

50) 실제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지도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의 제시된 설명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 원용문, 「문학의 해석과 방법」,이회문화사, 1997.

- ① 시조는 정형시이다. 정형시이면서도 글자수의 가감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한다는 점에서 한시와는 다르다. 그렇더라도 우선은 3장 6구 12절로 되어 있는 시조의 형식적 특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 ② 시조의 율격 면에서 음보율과 음수율에 대한 특성을 알고 반드시 지켜야 할 곳과 지키지 않고 가감할 수 있는 구절에 대해 알아야 한다.
- ③ 그러한 형식적 특성을 맞추면서 자기가 쓰고 싶은 시상을 자연스럽게 담아서 형식과 내용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우선은 형식에 맞게 글자수를 맞추어 써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 ④ 시조의 정형과 원리를 잘 인식해서 부단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써 보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다.

3.4.3.4/ 3.4.3.4/ 3.5.4.3 의 음수율만 맞추면 시조가 된다는 잘못된 논리에 치우치기 쉽다. 3장 6구 46자 내외의 형식과 음수율의 특징을 시조의 정형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준과 일치하는 고시조는 많지 않다.⁵¹⁾ 3장 형식이 나름의 미의식을 갖춘 틀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⁵²⁾ 고 할지라도 시조 형식의 운용에 창조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단순한 변조나 답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기준 틀에 맞추어야 한다는 잘못된 논리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오히려 시조 가락의 묘미를 살리기 어려우며, 음수율을 강조하여 창작된 시조들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시조의 본질에 맞는 나름의 시조 창작 원리를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시조의 기본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의 독창적이고 참신한 사고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처음부터 시조의 미묘한 호흡을 표현해 완벽한 시조를 쓴다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시조 창작 지도에서 교사가 정형성의 틀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중요하다. 시조의 음수율만으로 그 정형성

51) 음수율에 관한 근본적인 난점은 고시조 가운데 초, 중, 종장이 모두 이러한 형식에 꼭 들어맞는 것이 4%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전체의 4%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시조의 정형으로 삼는다면, 시조는 실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시조 창작의 방향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음수율로 시조의 자수를 헤아렸던 이유는 우선 시조 창작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려는 데 있었는데, 잘못된 지침은 오히려 시조 창작 방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 조동일, 「시조의 율격과 변형 규칙」, 『한국 민요의 전통과 시가 율격』, 지식산업사, 1996. p212.

52) 시조의 형태상 가장 중요한 특징은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구조로 1수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한시의 절구가 기승전결의 4행구조로 되어 있고, 서구시의 소네트가 4행/4행의 옥타브와 3행/3행의 세스테트로 된 4단구조의 14행 시로서, ‘서곡→전개→새로운 시상의 도입→종합결말’이라는 기승전결의 구조를 보임에 비해, 시조는 3단 구조로 정형의 틀을 완결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시조는 3장의 간결한 구조로서 서정적인 고양과 시상의 완결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에 간결, 담백하게 절제된 언어와 형식적 틀로서 정제되어야 하며, 내면의 감흥과 정취를 담아내야 하는 이유로 종장의 마무리는 부족한 감정의 잉여를 솔직, 담백한 서술로 풀어낸다.

때문에 초장에서 제기된 감정의 상황이 중장에서 더욱 고조, 부연되기도 하고, 초, 중장에서 제기된 감정의 상황을 중장에서 반추, 재음미하거나 부연 강조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종장에서 표출될 감정의 상황을 더욱 뾰족하고 절실하게 고조시키기 위해 중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정형시가> 창간호, 국제정형시가학회, 집문당,1997. p316.

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정형성의 틀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시조의 형식상의 특징으로 ‘3장 6구, 1구 2음보, 종장의 특유한 구조 등’을 든다. 종장의 1음보가 보통 3자로 고정되는 반면, 2음보는 5음절 이상으로 쓰여 진다. 시조의 형식은 이러한 기본적 형태 아래 그 고유한 3장의 의미 구조가 있으며, 의미 구조에 따라 3장 사이의 호응이나 질서가 나타난다. 시조의 종장은 완결과 종결적인 기능을 갖는데, 그 기능은 율격면이나 의미면에서 동시에 실현되는 구조적 특성을 취한다. 때문에 교사는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지도할 때 초장이나 중장의 형식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종장의 의미와 그 특징에 대한 지도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⁵³⁾ 시조가 본래 가지고 있던 즉흥 문학의 성격도 시조 창작을 위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시조를 즉흥적으로 창작할 수 있음은 학생들이 시조를 부담 없이 즐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삼행시를 지어보게 하거나, 사설시조를 개작하여 랩송으로 불러보게 하는 것도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한 방법이 된다. 삼행시 짓기의 경우 말놀이로 유행되다가 대중매체에 의해 지나친 말놀이 장난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현상 또한 즐기면서 즉흥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현대 구비문학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삼행시 짓기가 한 단계 발전되어 시조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들이 시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

53) 시조의 종장 형식의 가장 큰 특성은 종장 첫 음보의 3음과 둘째 음보의 5음 이상을 거의 정형으로 한다는 점이다. 종장에서 이러한 1,2음보의 형식만 지켜진다면 초장이나 중장의 파격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허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자수(字數)는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하다. 3(4), 4 등의 음수율은 국어 어휘 형성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시조의 주된 율격을 음보율로 보는 것도 가능함을 지도한다. 즉, 음보율에 따라 각 문장들은 4음보 가락을 살려 시조 특유의 종장의 묘미를 살려보게 한다. 시조 종장의 내용의 경우, 초장이나 중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서정을 나타내거나, 초장과 중장의 내용을 완결시킬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초장과 중장은 차분히 굴곡 없이 진행시켜 종장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게 하고, 종장 전반부에 율동적 긴장감을 주었다가 후반부에는 안정감을 주어 조용히 여운을 남기며 끝맺도록 한다.

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조를 매개로 한 표현 활동은 시조의 특질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생각을 발휘하여 창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좋고, 교사의 재량에 따라 보다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시조를 매개로 하여 활용할 수 있는 표현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고시조를 현대시로 고쳐보기
- 현대시를 시조로 고쳐보기
- 시조를 노래로 만들어 보기
- 사설시조를 모방하여 써보고, 랩송처럼 불러보기⁵⁴⁾
- 즉흥으로 삼행시 지어보기, 삼행시 글 시조 형식으로 고쳐보기
- 시조로 시화 작품 만들어 보기

수업 시간 이외에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조의 창작은 고시조의 일반적인 형식 원리와 현대적인 창작 원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시조의 구조적 틀과 율격에 맞게 쓰되, 학습자는 자신의 생활 경험이나 주변 사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적 안목을 가미해 현대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형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고시조의 양식적 전통을 이어서 현대적 감상을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학습자가 고시조를 창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

54) 사설시조는 노랫말의 장형화를 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랩송과도 유사점이 있다. 랩송의 등장이 대중가요에 미친 문화적 충격과 조선 후기 사설시조의 등장은 문화적 욕구와 사회적 상황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많다. - 김덕현, 「시조문학 교육론」, 박이정, 2004. p 269.

전제로 한다.

② 시조 창작 학습의 실제

시조 창작 영역에 대한 학습은 소집단 활동을 활용한다면 더 나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집단 활동 학습으로 모둠별 공동 작품을 짓게 하여 발표하게 하거나, 잘 표현된 작품을 학생들이 직접 골라보는 활동을 하면 학습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창작된 작품을 서로 돌려가며 읽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토의, 협의하여 고쳐 쓰게 하는 평가의 과정은 중요한 학습 과정의 한 부분이 된다.

처음 시조를 창작할 때에는 흥미와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시조를 낭송, 감상하는 과정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시조의 기본 형식과 운율을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기존의 시조 작품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고쳐 써 보게 하거나, 미완성 시조를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완성하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또한, 시조 작품에 나타난 표현 방법을 찾아내어 비슷한 표현이나 다른 표현 방법으로 바꾸어 볼 수 있고, 패러디 방식의 모방시조 쓰기 활동이나, 짧은 시조를 그 내용의 성격에 따라 기행문, 편지글, 일기문 등의 다른 장르로 새롭게 바꿔 써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활동은 내용에 대한 심화된 이해는 물론, 감상의 느낌을 새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특히 제목이 없는 대부분의 고시조 특성을 고려해, 작품의 제목을 창의적으로 지어보게 한다거나, 작품의 화자와 시점을 바꿔서 새롭게 시조를 써 보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중요한 것은 시조 창작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시조 작품을 완벽하

게 완성하는 창작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창작 활동을 직접 구성해 봄으로써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시조 감상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데 있다.

표현 및 창작 영역에 활용 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조의 기본 형식 익히기

시조의 기본 형식에 맞는 시조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알맞게 시조를 써 넣어 보는 활동은 시조의 형식적 측면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활동이 된다. 교과서에 제시된 시조 한편을 학습지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고시조는 물론, 고시조의 전형적인 틀에서 다소 벗어나지만 나름의 변형의 미학을 가지는 현대시조 제재 또한 활용 가능하다.

*** 다음 인용된 정철의 시조를 음보율에 맞춰 끊어 써 보자.**

어버이살아실제섬기기란다하야라
 지나간후면에닭다어이하리
 평생에고쳐못할일은이뿐인가하노라.

*** 다음 인용된 현대시조 유재영의 '독방길'을 음보율에 맞춰 끊어 써 보자.**

어린염소등가려운어우비도지났다
 목이 긴메아리가자맥질을하는 곳
 마알간꽃대궁들이물빛으로흔들리고. (이하 생략)

	제 1,3,5 구		제 2,4,6, 구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
초장				
중장				
종장				

시조 장르가 가지는 3장 구조의 형식적 특징을 먼저 살핀 다음, 장(章)장(章)간의 관계가 갖는 의미 관계를 살피는 것은 표현 교육적 측면⁵⁵⁾에서 도움이 된다. 시조의 3장 구조와 관련한 활동 중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해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삼행시 쓰기 활동을 들 수 있다. 삼행시 쓰기 활동은 문학 교육의 현장에서 동기 유발이나 즉흥적 표현 활동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교사는 이러한 활동이 실제 수업 과정 중 지나치게 장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시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시조와 삼행시간의 유사한 형식적 자질을 활용하되, 시조 장르 특유의 의미 구조를 이해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시조 창작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지도하면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쉽고도 재미있게 표현하게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조의 기본 형식 틀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방법으로 시조의 ‘장’이나 ‘구’ 바꿔 쓰는 활동도 효과적이다. 시조의 ‘장’이나 ‘구’를 바꾸어 쓰는 활동은 적절한 작품을 선정하여, 시조의 한 장이나 구를 빈칸으로 처리하여 채워 넣게 하는 방법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조 창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작품을 개작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쉽게 시조 특유의 형식적 틀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된다.

55) 김대행은 시조의 의미 구조를 전통적인 글쓰기 발달과 연결하여 문학 교육적 관점에서 ‘대상(object)-관계(relation)-의미(meaning)’의 OMR 구조로 접근한 바 있다. 그는 ‘초장에서 대상을 먼저 제시하고, 중장에서 그것을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놓음으로써 그 속성을 구체화하고, 종장에서 주체인 나에게 주는 의미를 규정하는 절차를 보이는 사고 과정은 시조 뿐만 아니라 설(說)을 비롯한 거의 모든 글쓰기에 두루 나타나는 전통성과 보편성을 가진 구조’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조의 구조를 통한 문학 교육이 주는 교육적 시사점은 문학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이점 이외에도 사고력과 언어 능력 신장을 위한 창작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 시조 텍스트를 활용한 패러디

처음부터 학생들에게 소재나 주제를 정해주고, 시조를 창작하게 하는 활동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시조 창작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은 시조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 시조 모티브를 활용한 패러디는 그런 점에서 효과적이다. 패러디는 특정작품의 모방이되 원작과는 차이를 가진 모방이고, 원작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재기능화하는 방법이다. 패러디를 통한 표현 교육은 시조의 형식과 구조적 특징 등에 대한 지식 전달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상으로의 학습의 관점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⁵⁶⁾ 패러디에 의한 글쓰기 방식은 작품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을 글쓰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지도 방안의 하나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고시조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주제의 고답적인 측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이나 효와 같은 유교적인 이념들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나름의 효용성을 가지나, 감각적이고 흥미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요즈음의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흥미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때문에 더 이상 고전이 고리타분한 무언가로 인식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전을 하나의 열린 텍스트로 보고, 학습자의 흥미와 일상의 경험, 오늘날의 문제의식을 적용하여 감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조 텍스트를 패러디해보는 활동은

56) 패러디를 활용한 시조문학의 교육적 효과

- 시조문학 교육에서의 패러디 활용 방안 연구, 지유신, 이화여대, 2000. p 97.
- 하나의 과제를 두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탐구에 몰두하며, 그러한 과정을 즐길 수 있다.
- 대상이 된 시조문학을 자연스럽게 스스로 내면화시킬 수 있다.
- 시조를 대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글쓰기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제한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 상상력과 기발한 발상을 통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 친구들끼리의 상호 평가가 가능하다.

시조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표현 교육문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사대부의 풍류마당에서 시조를 향유할 때 처음에는 정격의 시조를 즐기게 된다. 일차적 흥은 유발될지 모르나, 유장한 분위기에다 진지하고 엄숙한 내용은 계속하면 단조로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때 그러한 단조로움을 벗어날 필요로 파격의 사설시조를 향유함으로써 흥취를 돋우고 풍류를 즐길 수 있게 된다.⁵⁷⁾ 이렇게 정격시조 또는 사설시조의 여부에 따라 연행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듯이, 문학 교육 현장에서도 어떤 체재를 텍스트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사의 유연한 재량이 요구된다. 이때 중점을 두고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학습자의 활동에 대한 내적 흥미성이며,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기에는 사설시조를 통한 패러디 활동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 감상 한 시조 중 하나를 택해 말을 바꾸는 방법으로 흥내내기(패러디)를 해 보자.**

개를 여러문이나 기르되 요 개긋치 알먹오라
익은 님 오며는 소리를 뉘뉘 치며 치썩락 나리썩락 반겨서 내닫고 고온 님 오며는 뒷발을 바동바동
무르락 나오락 강강 좃는 요 도리 암키
선 밥이 그릇그릇 날진들 너 머길 줄이 있시라. - 작자미상, 「청구영언(진본)」⁵⁸⁾

내게는 怨讐 1 가 업서 개와 둠이 큰 怨讐로다
碧紗窓 깊은 밤의 품에 들어 자는 입을 자른 목 느르혀 뉘뉘쳐 울어 닐어 가게 흐고
寂寞中門 에 왓는 님을 물으락 나오락 강강 쯤저 도로 가게 흐니
암아도 六月流頭 百種前에 서러저 업씨헝리라 - 박문옥, 「청구가요」⁵⁹⁾



동생이라 하나 있으되 요같이 알미울까
자기 할 일 다하면 컴퓨터 켜고 키보드 소리 타닥타닥, 자기 할 일 다 못하면 나 혼자 컴퓨터 한

57) 김학성, 사설시조의 담당층,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p413.

58) 중학교, 국어(2-1), p127.

59) 권영민, 고등학교 「문학(하)」, 지학사, 2004. p45.

다고 궁시령궁시령

놀자고 아양 떨어도 너랑 같이 놀아 줄 수 있으랴.

첫 번째 인용한 시조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2-1), '3. 우리 고전의 맛과 멋' 단원에 실린 텍스트 제재로서 정철의 <훈민가> 와 함께 수준별 교육과정인 '보충, 심화 학습' 자료로 수록되었다. 교과서에서는 두 시조 제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생각해보게 하거나, 시조를 읽고 난 느낌이 어떠한지 말해보자, 시조에서 말하는 이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이 사람은 자기 집 개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의 내용으로 활동을 한정하여, 시조의 정서적 분위기에 초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시조의 특유의 해학성과 생동감 있는 음성 상징어(音聲象徵語)의 사용을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 자극과 함께 표현 능력 신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 대화체 시조 유형의 활용

대화체 시조는 '대화에 의한 전개'라는 특이한 형태로 작품의 의미를 3장에 걸쳐 전개시키는 의미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대화체 시조의 종류는 일방 전달형, 상호의사 전달형, 문답형으로 나눌 수 있고, 화답시조도 이 유형에서 다룰 수 있다. 대화체 시조 유형의 활용은 창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즉, 시조에서 활용되는 대화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작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요소를 마련한다. 이러한 대화체 시조를 잘 지도하여 학생들에게 상황에 알맞은 모티브를 주고 창작해 보게 하는 활동은 문학적 표현력, 더 나아가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교사는 먼저 예시 작품을 제시하여 대화체의 특성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로 대화

체에 알맞은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시조 창작을 시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화체의 형식을 배열하여 새로운 의미와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개별 학습의 경우 쉽지 않지만, 소집단 활동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과 의견을 조합한다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창작할 수 있다. 또한, 대화체 시조 쓰기에 익숙해지면 대화체 시조의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는 화답시조를 써 보도록 지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화답형식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창작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주제 아래 소집단 별로 의미구조를 만들어 함께 창작해 볼 수 있다. 화답가의 가장 큰 장점은 상황에 대한 계기적(繼起的)연상 작용이 가능하므로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시조를 쓸 수 있다는 점이다.⁶⁰⁾

-이방원의 「何如歌」와 정몽주의 「丹心歌」 활용한 시조 창작 활동

이런들 엇더흐며 저런들 엇더흐료
 만수산(萬壽山) 드령참이 얼거진들 그 엇더흐리
 우리도 이곳치 얼거져 백년(百年)까지 누리리라. - 이방원, 하여가 -

이 몸이 주거주거 일백번(一白番) 고쳐 주거
 백골(白骨)이 진토(塵土) 되어 녁시라도 잇고 업고
 님 향(向)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 작품의 주제에 관하여 말해봅시다.**

*** 이 작품의 화자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말해봅시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것)**

* 친구와의 대화나 일상의 경험을 위 시조의 시적 장치를 활용해 표현해 봅시다.

친구와의 대화, 일상의 경험	시조로 표현한 내용
· 친구:	1)
· 나:	2)

“자네도 우리와 함께 하세나”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 이방원의 시조라면, 정몽주는 “죽어도 안돼”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성이 담긴 의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시조의 3장 형식에 담아 표현해 낸 것은 이 시조의 큰 묘미라 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시조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학생들도 자신들의 일상의 경험과 느낌을 담아 의사 표현의 방법으로 시조 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의 시도는 문학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사용 능력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

* 화답시조 학생 활동의 예①

A: 나는 왜 공부를 잘 하지 못할까?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B: 수업 시간에 졸지 말고 열심히 하면 노력한 만큼 잘 할 수 있을거야. 가만 보면 넌 수업시간에 집중은 안하고 매일 노래만 부르더라?

→ 성적만 떨어지고 노력할 의욕 없네
 어떻게 노력해야 성적이 오를까
 친구야 도움 될 만한 조언을 해줘보렴
 수업시간 꼬박꼬박 네 머리는 천근만근
 눈꺼풀 치켜들면 못할 리가 없건마는
 뒤에서 들려오는 건 노랫소리 뿐이니라.

60) 황창주, 「국어과 시조 교육 성격 연구」, 아주대, 2001.

*** 학생활동의 예 ②**

TV

우리의 요즘 상자 유익한 정보 주고
쇼프로 가요프로 재미있는 드라마로
생활에 활력을 주는 벗 TV가 최고라네.

○○ 중학교 *학년 ○○○

컴퓨터

할 일이 없을 때면 컴퓨터로 게임하고
문서를 작성해도 컴퓨터로 작성하는
이같이 편리한 물건이 어디에 또 있으랴.

○○ 중학교 *학년 ○○○

*** 학생활동의 예 ③**

집인들 어떠하리 학교인들 어떠하리
기왕에 자율학습 학교선들 어떠하리
아서라, 집 갈 생각이면 꿈조차 꾸지마라.

자율학습 하고하고 일백 번 고쳐하고
회초리 이리저리 허공을 헤매어도
집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라

화답시조는 주고받는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토
의나 토론을 화답시조 형태로 지어보게 할 수도 있다.

***세 명을 하나의 모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시조를 지어보자.**

1. 모둠별로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한다.
2. 한사람이 초장을 지으면 다음 사람이 이어서 중장을 짓고, 마지막 사람이 종장을 완성한다.
3. 다 지은 다음에는 모둠별로 돌아가며 평가하도록 한다.
4. 오늘날 시조를 짓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의해 보자.

즉흥 시조를 쓰게 할 때에는 10분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주고, 집중해서 시조를 쓸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작품의 문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의 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단계에서는 학습자 상호 작용 평가가 활용될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언은 교사가 아닌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소집단 별로 토의를 하면서 서로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는 활동 후에, 시상의 전개와 흐름에 대한 조언, 착상의 독창성, 의미의 구체화 등 전체적 흐름과 관련된 교사의 종합적인 평가도 중요하다.

라. 말놀이 시조 유형의 활용

말놀이 유형의 시조는 시조를 통한 의사 전달이 우선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상황 제시나 언어표현, 구절을 재미있게 반복하여 연행 현장의 관객들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들을 말한다. 입말의 미감을 살릴 수 있는 ‘말꼬리 잇기 놀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의 사용이나 동일한 소리의 열거, 병치를 통한 언어유희(言語遊戯)도 여기에 해당한다.

靑山(청산)도 절로절로, 綠水(녹수)도 절로절로,
山(산) 절로 水(수) 절로, 山水間(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中(중)에 절로 조란 몸이 늑기도 절로 훌이라. - <해동가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내용의 노래로서, ‘ㄹ’음과 같은 부드러운 유음(流音)의 반복으로 물 흐르는 듯한 느낌과 경쾌한 분위기를 갖게 한다. 이러한 표현은 시의 주제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작품의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형성

화하는데 도움이 된다.⁶¹⁾

먹암이 립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산채(山菜)를 립다가 박주(薄酒)를 쓰다가
우리는 초야(草野)에 못쳐시니 립고 쓴 줄 몰니라 -이정신, <가곡원류(歌曲源流)>

자연과 함께 하는 유유자적(悠悠自適)한 삶을 노래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는 ‘매미’와 ‘쓰르라미’의 울음소리에서 ‘맵’ 고 ‘쓰’ 다라는 미각적 심상으로 이 끌어낸 기발한 착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도, 초야에 묻힌 조출한 생활의 유유자적(悠悠自適)함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 시의 언어가 지닌 묘미를 잘 활용한 작품이다. 이러한 유사한 청각 영상에 의한 연상 효과는 학습자의 동기 유발과 역동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표현 활동에 도움을 준다. 또한 청각 영상을 통한 새로운 발상은 학습자의 사고력 신장과 사물을 창의적으로 파악하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다.⁶²⁾

지금까지 우리의 문학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해, 수용 중심의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교육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출하기보다는 남의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용 중심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학습자의 창의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시조 장르의 감상과 연계된 시조 창작 과정을 통한 표현 교육은 의미가 크다.

61) 이는 1930년대의 순수시파였던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에서의 부드러움을 연상시키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물이 흘러가는 듯한 순조로움을 느끼게 한다.

62) 허왕옥은 동음이의어 활용의 국어 교육적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 허왕옥, 「고전 문학 교육론」, 보고서, 2003. p 350.

- ① 학습자가 작품의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대화로 이해하게 한다.
- ② 작품에 나타난 동음이의현상의 활용 양상을 살피는 일은 언어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교수, 학습의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③ 동음이의현상의 활용 양상을 살피는 수업은 문화의 차이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교사는 시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감상을 중심으로 지도 하되, 그 과정에서 시조 장르 특유의 율격과 구조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시조의 창작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작 교육을 강조하여 지도하게 되면 써 보려고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의 이해와 감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조의 감상 지도와 창작 지도가 유기적으로 연관될 때 비로소 학생들은 시조 장르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수용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학 교육은 단순히 내용 전달 중심이 아니라 문학 교육이 작품의 이해와 감상 뿐 아니라, 문학의 수용과 창조를 동시에 포괄해야 한다.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작품을 제시하고, 감상과 수용의 과정에서 자기표현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창작의 과정에까지 이를 수 있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시조 문학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조 문학의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자 소집단 토의 활동을 통한 시조 문학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특별히 시조문학 작품을 문학 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그동안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육에 관한 논의들은 많았지만, 시조문학 교육에 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으며, 시조문학이야말로 고전시가 문학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 틀을 유지하여 창작되는 문학 장르로서, 오늘날 시조 문학 교육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제 I 장에서의 시조 교육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 검토를 시작으로, II 장에서 시조 텍스트의 교육적 가치를 살피고, 이러한 시조의 교육적 가치가 현행 학교 교육에 어떻게 수용되어 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그러나 시조의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내용은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학습 내용과 활동들도 시조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 이유는 실제 수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조 장르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없는 시간적인 여건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시조 학습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소집단 토의 활동 과정을 시조 문학의 교수, 학습 방안의 하나로 활용하려고 했으며, 그 교육적 가치를 검토하고자했다. 때문에 III장에서는 소집단 토의 활동을 통한 교수 학습 활동의 방향과 수업 방법을 설명하고, 수업 모형을 제시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설명하였다. IV 장은 이러한 소집단 활동을 활용한 시조 교육 방안을 크게 세 영역(원리와 성격, 감상, 창작 영역)으로 나누어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했다. 본고에서 소집단 토의 활동으로 제시한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시조의 원리와 성격적 측면에 관한 인지적 측면에 관한 학습 모형으로는 직소우(JIGSAW)모형, 즉 전문가 협력학습 모형을 활용하고, 감상, 창작 영역의 측면에 관한 활동은 일반적인 소집단 토의 활동 과정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수업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학습내용, 혹은 활동에 적합한지를 잘 고려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자의 소견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직소우 모형을 활용한 시조의 원리 학습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학습지를 제시하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방법의 효과를 실제적으로 확인해볼 수 없다는 점은 본고의 한계로 지적 된다. 그러나 토의 활동 과정의 하나인 전문가 학습 형태의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 형태로 특히 인지적 영역에 관한 학습, 시조에 관한 원리나 개념을 가르치는데 적용하면 효과적 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교사의 일방적인 내용 전달의 수업을 지양하고, 토의 과정을 바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성과를 학습자 스스로 찾아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의가 크리라 기대한다. 시조의 이해와 감상 교육을 위한 방안 또한 소집단 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내용으로, 그 활동 영역을 텍스트 이

해 영역, 사회, 문화적 맥락 영역, 상호 텍스트적 이해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작품의 선정의 기준은 현행 중학교 교과서 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강텍스트를 제시하여 그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고에서는 시조의 이해와 감상적 측면에 관한 교육 방안 이외에도 시조 낭송 지도 방안과, 창작지도 방안을 함께 살펴보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시조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지만, 시조창에 대한 지도는 시조가 가진 음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창작 교육 또한, 감상과 수용의 연계 과정에서 함께 지도되어야 할 부분으로, 창작 교육을 지도하게 되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해 보려고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의 이해와 감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이러한 수업 방법은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본시 내용을 학습 한 후, 보충, 심화 학습시간에 시조 장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루는 수업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본고에서는 학습 방법의 하나로 제안한 소집단 토의활동의 효율성과 기대되는 효과를 검증해 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시조 문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 몇 가지 덧붙여 제안한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시조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더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본고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한정하여 그 교육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전제하여, 이러한 교육 방안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연계된 과정 속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에서 낯선 시조 문학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몇몇 편의 시조를 배

우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엄청난 분량의 시조를 접하게 된다. 현재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조 교육 실태를 고려할 때,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시조 장르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못하고 학습하게 됨은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물론 교사들이 시조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교육현장에서도 시조 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이 학생들에게 제시할 알맞은 참고 작품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고, 작품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현행 학습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꼭 전제되어야 할 문제이다. 교사의 재량권 아래 보다 더 다양한 보강 텍스트 활용한 시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교육부,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 교과서, 1997
- ,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도덕, 사회』 대한 교과서, 1999.
- 한국 교원대, 고려대국정도서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어(1-2)』 교육인적자원부, 2001.
- ,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생활 국어(1-2)』 교육인적자원부, 2001.
- , 『중학교 국어(2-1),(2-2)』 교육인적자원부, 2002.
- , 『중학교 교사용지도서 국어, 생활 국어(2-1).(2-2)』, 교육인적자원부, 2002.
- , 『중학교 국어(3-1).(3-2)』 교육인적자원부, 2003.

2. 단행본

- 강명혜, 『고려속요 사설시조의 새로운 이해』, 북스힐.2002.
- 구인환 외, 『문학 교육론』,삼지원, 1992.
- 김대행, 『시조 유형론』, 이화여대 출판부, 1986.
-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2000.
- 김선배, 『시조문학 교육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1998.
- 김제현, 『시조문학론』, 예전사, 1995.
- 김풍기, 『한국 고전시가 교육의 역사적 지평』, 월인, 2002.
-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 , 『한국고전시가의 정체성』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나정순, 『한국 고전시가 문학의 분석과 탐색』, 역락, 2000.
- 박영목 외,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2002.
-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 송지현, 『문학 교육의 본질과 방법』, 푸른 사상, 2003.
- 신연우, 『가려뽑은 우리 시조』, 현암사, 2004.
- 원용문, 『한국시조 작가론』 국학자료원, 1999.
- , 『고전문학 논해』, 백산출판사, 1992.
- , 『문학의 해석과 방법』, 이회문화사, 1997.
- 이영지, 『한국 시조문학론』, 양문각, 1994.
- 정병욱, 『한국 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1977.
- 조동일, 『한국문학 강의』, 길벗, 1994
- ,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84
- , 『한국 민요의 전통과 시가 율격- 시조의 율격과 변형 규칙』, 지식산업사, 1996.
- 차호일, 『(현장 중심의)문학 교육론』, 푸른 사상, 2003.
-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 한철우, 『한국시조작가론』 <토의 및 협동학습을 통한 시조문학 교육>, 국학자료원, 1999.
- 허왕욱, 『고전시가교육의 이해』, 보고사, 2004.

3. 논문

- 김대행, 「손가락과 달 - 시조형식을 통해 본 문학교육의 지표론」, 『선
청어문』 제 23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5.
- 김동준, 「시조 문학의 구조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80.
- 김명숙, 「감상과 짓기의 연계를 통한 시조 교육 방법」 서울교대 교육

- 대학원, 석사논문, 1999.
- 김선배, 「시조 문학 교육의 통시적 연구」, 한국 교원대 박사논문, 1996.
- 김재숙, 「시조 교육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창혜, 「중학생의 시조 창작교육 방안」, 국어교육연구, 제 34집, 국어교육학회, 2002.
- 나정순, 「시조 장르의 시대적 변천과 그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89.
- 박숙희, 「토의 활동과 구조 중심 협동 학습을 통한 읽기 교수, 학습 방법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박철순, 「시조 교육의 위상 정립과 효율적 학습 지도 방안 모색」,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박현동, 「의미구조 유형을 활용한 시조 창작 지도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방현자, 「시조 짓기 지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심혜숙, 「고시조 학습 지도의 문학교육론적 접근」,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윤영호, 「모둠 토의를 통한 학습자 중심의 문학 수업 모형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이광용, 「시조 짓기 지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이찬욱, 「시조의 운율 구조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1996.
- 이태극, 「시조의 형태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73.

- 이혜영, 「소집단 활동을 통한 시조문학의 교수, 학습」,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정대순, 「시조창에 관한 연구- 시조창의 중학교 음악교육 적용에 대하여」, 연세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논문, 1986.
- 조성리, 「시조 문학의 교수 학습 방법론 연구 -사고력 증진을 위한 창조적 활동을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조성진, 「시조의 담론 구성방식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1.
- 지유신, 「시조문학교육에서의 패러디 활용 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하연경, 「시조창작교육론」,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황보관, 「시조 종장의 성격과 기능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4.
- 황창주, 「국어과 시조교육 성격 연구」, 2001,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ABSTRACT

The Korean Verse education method involving a small group discussion activity.

- Based on literature work from junior high school textbooks -

Kwak, Hye-Ji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literature education of the 7th Curriculum of Education Ministry main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eaningful learning experience. Therefore, literature education has to involve creative appreciation and comprehension of literature work through diverse activities rather than mere acceptance of existing interpretations. However, current education system in which the Korean verse is taught is lopsided to fragmentary appreciation and analytical approach such as word-to-word interpretation and defining the subject of the literature work, thus leaving students a strong impression that the Korean verse is a traditional genre. Although the Korean verse itself has high potential to become significant literature material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efforts to establish effective strategies of learning the Korean verse have been insufficient. For the Korean verse has been taught with instructional methods

applied to general literature education or modern poetry, students have failed to understand the essence and recognize the charm of the Korean verse genre, thinking the Korean verse is an outdated and difficult genre to study.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rope the possibility of the Korean verse literature education, and discuss the education plan involving a small group discussion activity to order to improve learning environment of the Korean verse.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eceding research about the Korean verse in chapter 1, and in chapter 2, analyses various educational values of the Korean verse and the way these values are accepted in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In spite of educational values the Korean verse possesses, the current curriculum is insufficient to deliver them to students. To overcome this problem, this research utilizes a small group discussion activity as a new way of teaching and learning the Korean verse, and examines its effectiveness. For this reason, chapter 3 of this research outlines general things about the Korean verse education through the small group discussion activity, and explains specific phases. Chapter 4 divides the small group discussion plan into three fields(1.principle and character, 2. appreciation and 3. creation) to obtain a much more effective education measure.

The small group discussion model presented in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in two ways. Its notable that this research makes use of the 'JIGSAW' model (professional cooperation model) regarding the cognitive side such as the character and principles of the Korean verse

and uses the general small group discussion activity for the fields of appreciation and creation. It is significant that this method sublates unilateral delivery of the knowledge, helping the student accomplish learning goals through discussion process. This research subdivides the fields of comprehension and appreciation of the Korean verse to utilize the small group discussion activity method. Literature work exhibited in this research is selected mainly from current junior high school textbooks with supplementary texts to secure diversity. For another thing, this research looks over recitation and creation plan to make the Korean verse more familiar material for students to study. At the moment, there is absolutely no chance for students to experience recitation at school. Since recitation of the Korean verse can bring about interests about the Korean verse genre among students and its musical side can be taken into consideration, measure of recitation education should be prepared. Also, it would be helpful to link the students feelings and thoughts to the verse creation process to lead students to more constructiv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 literature work.

The research does not verif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mall group discussion activity as a way of learning the Korean verse, but this method certainly suggests a new direction of the Korean verse education. I look forward to more active education of the Korean verse through development of effective studying material and efforts and interests on the part of teachers.

